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3698-10



아카이브 톺아보기 vol.8

기록으로 보는 '서울 다방사'
만인의 응접실이자
안식처, 사무실이던!

어린이 '기록물 보존요원' 교육 참여기
국내외 이색 아카이브 순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이야기

에드 루샤와 LA 아카이브
서울기록원이 만난 기록가
공간을 기록하는 황지은 대표

서울기록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 02-350-5600 | archives.seoul.go.kr

소통 715-0004
ISSN 2636-0764-08

일상의 흔적, 시대의 기억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을
수집하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경험을
기록유산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함께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건립된 서울의 기록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기록의 이관·수집, 기록물 보존·복원, 기록관리 교육,
전시 및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VER STORY

'커피공화국'에 비유될 정도로 시민의 일상 깊숙이 자리한 커피문화를 들여다보면 유행과 욕망, 낭만이 넘실거렸던, 나아가 사무실과 사랑방 역할까지 담당했던 시대의 공간 '다방'이 있습니다. 고종이 처음 가배를 마신 해인 1896년으로부터 130주년, 세계 최초로 믹스 커피가 등장한 1976년으로부터 50주년. 2026년 『아카이브 서울』은 이제는 아련한 기억 속 공간이 되어버린 다방을 찾아갑니다.

(사진 제공: 홍윤주, 프로파간다)

아카이브 서울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vol.8
편집인	이은주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기록원	
발행일	2026.07.	

archives.seoul.go.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제작총괄 이세진 보존서비스과장
제작담당 원혜정 주무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62길 7
전화 02-350-5600

기획편집	디자인	인쇄
P&WG손	김해정	프린피아

ⓒ2026. 서울특별시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SN 2636-0764-08
출판번호 소통 715-0004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3698-10

Contents

『아카이브 서울』은 서울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담아두기보다는 스치는 일이 더 많은 우리 일상과 사회에서 기억 그리고 기록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와 콘텐츠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03 여는 글

04 FEATURE

다방, 만인의 응접실이자 안식처, 사무실이던!

05 FEATURE1_ 문서의 재발견

들끓는 청춘과 단속의 역사

기록으로 보는 '서울 다방사史'

12 FEATURE2_ 외연과 내연

여전히 기록되고 소환되는 다방의 다방면

16 FEATURE3_ INTERVIEW

건축가가 왜 다방에 매혹되었냐면요…

『탐방다방』 저자 홍윤주의 '다방 예찬'

20 IN-SIDE

더 이상의 행정 공백 없다!

2025~2026 서울시 기록행정 변화

22 기록생활백서

오늘은 내가 기록물 보존요원~!

'초등 5년생 라이언'의 어린이 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기

26 서울기록원이 만난 기록가

3D 스캐닝, VR 기술이라는 열쇠로 여는 공간 기억

황지은 테크캡슐 대표

30 IN-SIDE

시공간의 레이어로 기록된 도시의 파노라마

'개념 미술가' 에드 루샤와 LA 아카이브

34 기록생활백서

136년 전 선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카이브 순례1_따끈따끈한 국내 '신상' 디지털 아카이브

36 기록생활백서

음원, 예술 작품, 메뉴판, 도서관, 전쟁을 연결하니 아카이브가!

아카이브 순례2 _영감과 감동의 해외 아카이브 실험들

42 THE SPOT

이쑤시개와 첨단 CT 사이 50년

'보존과학 종합 허브'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를 만나다

48 THE SHOW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입체도시 서울'의 대중교통 변천사 담아낸

〈어느 도시의 탑승록〉

50 REVIEW

맛이 기억되는 한 장소는 살아 있다

시민기록가가 전하는 부산의 맛, 『구포국수』

52 이토록작고소소한아카이브

"우리 시민은 별걸 다 기록한다니까요!"

서울기록원 '2025 기록의 날' 이벤트 우수 참여 사연들

54 COLUMN 세스헤트의 천창

응답을 기다리는 사진들:

우리는 어떤 과거,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58 아카이브 뉴스

일상의 흔적을 기록하고, 시대의 기억을 이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엄마아빠와 걸었던 골목길,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던 공원, 밤새 친구들과 시험 공부를 하던 곳, 첫사랑과 첫 데이트를 했던 카페 혹은 벼락 같은 영감이 내게로 왔던 곳….

시대마다 모습은 달랐지만 서울의 다방 또한 그렇게 시민들의 일상 곁 생활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나둘 사라진 다방은 이제 공공기록과 사진, 신문 등의 매체,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당시 서울의 풍경과 시대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흔적이 시대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록의 가치를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서울기록원 브랜드 북 『아카이브 서울 Vol.8』은 이러한 기록의 힘과 서사에 주목했습니다. 올해는 '일상의 흔적, 시대의 기억'을 주제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미처 기록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서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기획특집에서는 공공기록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서울의 다방'이 걸어온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정치와 청춘이 교차했던 다방의 모습을 기록으로 읽으며, 도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삶을 포착하고 있는 기록이 어떻게 오늘의 서울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전국의 다방을 찾아 기록해 온 『탐방다방』의 저자 홍윤주 대표 인터뷰 역시 일상의 공간을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록의 효용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기록원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기록 활동도 있습니다. '어린 시민들'이 직접 기록물 보존 처리 작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록물 보존요원으로 임명합니다' 교육 현장과 기록관리 정책의 변화, AI 시대 새로운 행정기록의 모습은 공공기록이 시민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사라져가는 서울의 공간을 3D 기술로 기록하는 테크캡슐 황지은 대표 인터뷰는 기록이 문서를 넘어 사진과 영상, 디지털 기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서울기록원 전시 〈어느 도시의 탑승록〉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를 통해 기록을 지키고 활용하는 현장도 만나봅니다.

이외 LA라는 도시를 기록한 에드 류샤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내외 창의적인 디지털 아카이브와 새로운 기록 실험, AI 시대 사진기록의 가치를 전하는 칼럼, 지역의 기억을 담아낸 간행물 『구포국수』,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별걸 다 기록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을 기록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기록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기억을 기록으로 연결하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공공기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아카이브 서울 Vol.8』이 시민 여러분께 기록으로 서울을 읽는 즐거움과, 일상의 작은 흔적이 미래의 소중한 기억이 된다는 의미를 함께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서울기록원장 **이은주**

기획특집

고종의 가배 시음 130주년, 믹스 커피 탄생 50주년…

다방, 만인의 응접실이자 안식처, 사무실이던!



서울 청자다방은 파티션 역할까지 한 어항이 자리잡아 독특한 분위기를 냈다. (사진 제공: 홍윤주, 프로파간다)





"그곳은 거리의 응접실이었다. 만인의 사무실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다. 한편으로 문학과 예술을 불태운 아지트였고 맞선과 데이트의 중심이었다. 나이 든 어른들의 사랑방이자 대학생들의 공부방, 직장인의 휴게실이기도 했다. 실업자의 연락처였고 회사 없는 '사장님'의 둥지였다. 의자 깊숙이 들어앉아 조용히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담소하는 여유도 있었다." *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민병욱은 '다방'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행과 욕망, 관계에 민감한 청춘들의 해방구이자 낭만적 일탈이 실험되던 공간이었다가 점점 문턱을 낮춰 시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다방. 이름은 하나이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쓸모와 효용에 최선을 다한 공간에 이 정도의 헌사쯤은 기꺼이 허락되리라.

2026년은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마신 해인 1986년으로부터 130주년, 세계 최초로 믹스 커피가 등장한 1976년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기에 '커피공화국'에 비유될 정도로 시민의 일상 곁을 지키는 카페의 원형이니 기념의 의미가 각별하다. 굽이굽이 펼쳐지는 서울의 다방 역사를 기록과 함께 들여다 보았다.



* 김윤식의 책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한겨레출판, 2012)의 17쪽에서 인용했다.

들끓는 청춘과 단속의 역사 기록으로 보는 '서울 다방사史'

송추향 | 한사람연구소 대표

서울 최초의 다방은 1902년 손탁호텔 1층에 들어섰다. 벨벳으로 장식된 르네상스식 실내 장식과 호화로운 샹들리에로 꾸며진 손탁호텔 다방은 당시 서양 문물의 상징과 같았다. 주로 외교관, 외국인 방문객, 개화파 인사들이 드나들었고, 주한 외교관과 선교사 모임인 '정동구락부'의 주요 집회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인천의 대불호텔, 서울의 손탁호텔을 비롯해 초기에 들어선 호텔식 다방들은 이 땅에 서양의 커피문화를 이식하는 교두보였다.

1·2
손탁호텔 외관과 호텔식 다방이 있던 실내 모습.
1896년 아관파천 당시 앙투아네트 손탁(Antoinette Sontag)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에게 서양식 요리와 커피를 대접하며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정동에 있는 옛 한옥을 하사받았다. 손탁은 이곳을 개조해 1989년 '손탁빈관'으로 첫 영업을 시작했고, 이 건물이 호텔로 쓰기에 너무 좁아지자 1902년에 2층 양옥 건물을 신축해 '손탁호텔'로 정식 개업했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다방茶房'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때였다. 당시는 차를 비롯해 술, 음식, 약 등에 관한 일을 주관하던 국가기관을 뜻했다. 이 다방제도는 조선시대로 이어져 이조 내시부에 소속된 관청이 되었다. 다방은 다례와 더불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 조선 후기 개항 흐름을 타고 서양의 커피가 흘러들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다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후 일본식 표현인 '끽다점'이나 외국어 표기를 따른 '카페' 등과 함께 다방은 근대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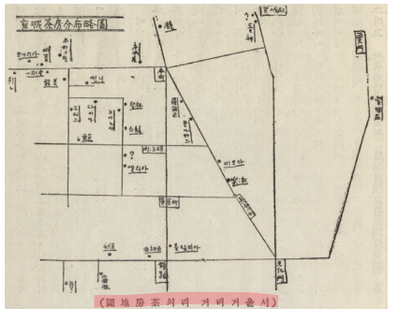
#1900~1940년대 다방 모더니스트와 예술가들의 아지트

1927년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다방 '카카듀'가 문을 열었다. 카카듀는 영화감독 이경손이 만든 다방으로, 인도풍의 식탁보와 하회탈을 걸어놓은 이국적인 인테리어로 화제를 모았다. 카카듀를 시작으로 영화배우 김인규·심영 부부가 운영한 '멕시코', 미술가 이순석이 연 '낙랑파라', 시인 이상의 '제비다방' 등 조선인이 주인인 다방이 속속 생겨났다. 문화예술인들이 운영하는 1930년대 다방은 동료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찾아들면서 단순한 찻집을 넘어 문화예술의 공론장이자 창작공방으로 기능했다. 하루는 아틀리에가 되었고, 다음 날은 미술전람회나 출판기념회가, 다른 날은 음악감상회가 선보이는 식이었다. 동시에 변변한 돈벌이를 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식민지의 이른바 '고등 실업자'들, 겹겹의 검열과 제약으로 창작 활동에 무력감을 느끼는 창작자들에게 다방은 커피 한 잔에 위로받고, 꿈을 나누며 연대하는 장소에 다름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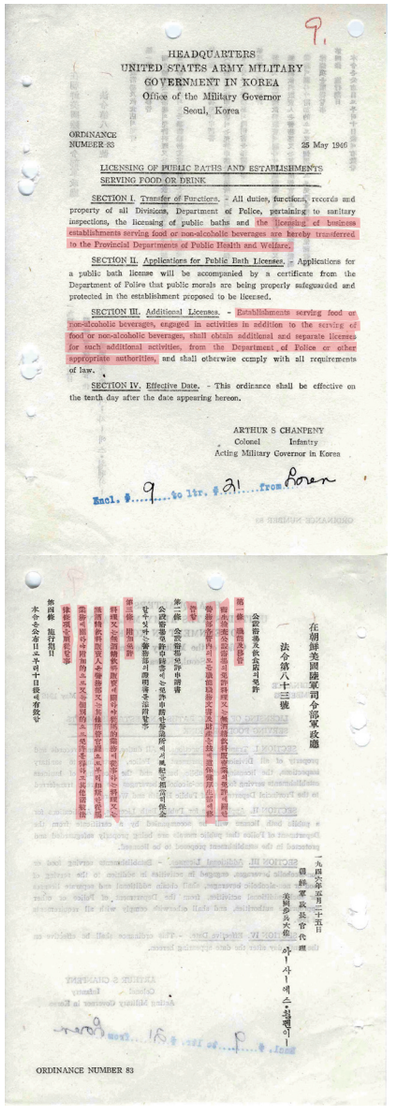
역사적 전환점인 해방을 기점으로 다방문화 또한 극적 변화를 겪는다. 태평양전쟁으로 물자 수입이 막히고, 일제의 강압으로 영어식 간판 대신 일본어만 허용되다가 해방이 되자 다방이 봇물 터지듯 늘었다. 가장 먼저 명동에 들어선 '봉선화' 다방에는 김광균, 오장환 등의 모더니스트와 좌익계 시인이 격의 없이 함께 드나들었다. 이어 문인과 화가들의 아지트였던 '마돈나', '하루삥', '비엔나', '라아뿌룸', '플라워', '금붕다방'들이 생겼고, 음악가들과 음악 전문 행사를 많이 열었던 '돌체', '휘가로', '담수다방' 등도 이 시기에 문을 열었다. 억눌렸던 정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방은 우익과 좌익



3



4



5

의 이념이 교차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뜨거운 정치적 공론장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룸펜실업군상'들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거나 불법적인 거래가 오가는 대기소로 이용돼 '실업자의 안식처'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남한에서는 1945년 9월 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9월 사이 미군이 개입해 국가 구조 및 행정 정비가 이뤄졌다. 여기에 특이하게 '다방 면허에 관련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눈에 띈다. 다방의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존 경찰 조직에서 행정 조직인 '보건후생부'로 이관된 것이다. 차를 만들고 접대하는 다방의 기능적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행기로 보인다.

3
1930년대 다방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소설에서 다방은 구보가 머물며 글을 쓰고, 벗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삽화는 시인 이상이 그렸고, 다방 '낙랑파라'를 모델로 삼았다. "다방의 오후 두 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피로한 것 같이 느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9회. (출처: 〈조선중앙일보〉, 1934.8.14.)

4
이한구가 그린 1930년대 서울 거리의 다방지도.
1930년대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문인 이한구는 낙랑파라 등의 다방을 드나들며 예술가, 지식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경성의 다방 전성기를 누리던 그가 잡지에 '보헤미앙의 애수의 항구, 일다방 보헤미앙의 수기'라는 수필을 기고했다. 이 글에는 당대 경성 거리의 다방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함께 구역별 다방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출처: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5.1.)

5
미군정 관보를 통해 공포된 군정법령 제38호.
일제강점기 다방은 경무국 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였다. 해방 직후 시작된 미군정은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1호를 통해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1946년 5월 24일 군정법령 제38호를 공포했다. 이 법령에는 위생검사 및 요리, 음료판매업(다방)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도 보건후생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영문과 국문으로 쓰여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서울 시내 다방 등 요식업 운영자들은 더 이상 경찰서가 아닌 서울시 위생과에서 새로운 면허증을 교환받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현대사료DB)

6
공무원 다방 요정 출입자 징계의 건.
1952년 8월 2일에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작성한 〈국무총리 훈령 제24호〉에는 '다방이나 요정에 출입한 공무원들을 엄중히 징계처분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 덧붙인 '요정다방 출입공무원일람표'에는 각 부처별로 요정이나 다방에 출입한 공무원 수를 집계해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도 6명 적발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7
특정유흥지역 설정에 관한 건.
1958년 3월 5일 서울시 행정국 민원과에서 생산한 이 문건을 보면 서울 전역에 흩어진 유흥시설을 특정 지역에 몰아서 운영하려는 정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흥지역으로 특정된 곳은 중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등으로, 주로 강북 지역에 집중 지정되었다. 이 지역 외 신규 업소의 출현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기존 업소도 점진적으로 특정된 지역으로 흡수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조치의 기본 내용이다. (서울기록원 소장)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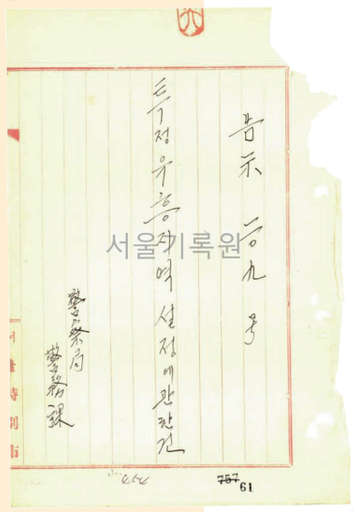
#1950년대 다방
피난지 안식처는 단속 대상이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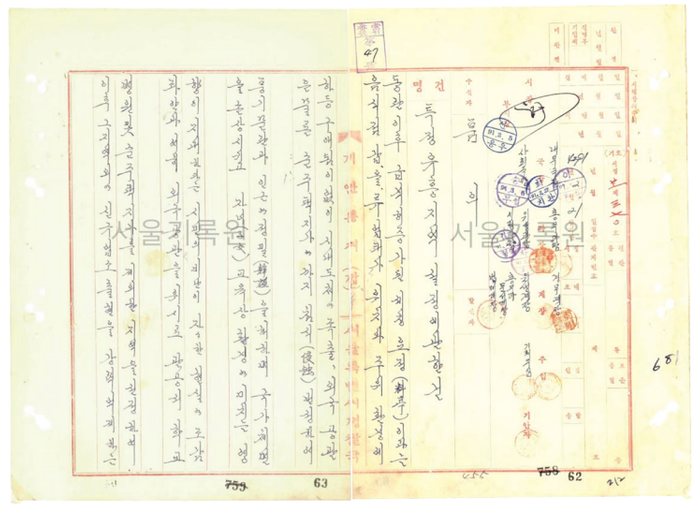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의 다방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다방의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생긴 '돌체다방'의 하석암 부부는 짐 속에 레코드판을 이고 지고 부산으로 피난갔고, 부산역 앞에 그 이름 그대로 다시 열린 다방에는 명동 시절 단골 음악 애호가들이 몰려들었다. 피난지에서도 커피와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명소였다.

많은 것이 멈추고 파괴되는 전쟁의 아수라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길을 모색하려 수많은 이들이 다방을 찾았다. 특히 광복동 로터리에 있었던 '밀다원'은 화가 이중섭이 죽치고 앉아 담뱃갑 속 은박지에 볼펜으로 은지화를 그리던 장소였고, 소설가 김동리의 소설 『밀다원시대』의 창작의 원천이기도 했다. 다방은 그들에게 사무실이자 서재, 연락처, 심지어 살림집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전쟁이 멈췄고, 사회 재건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정부는 행정권을 이용해 일본식 풍속과 사치를 단속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1952년 국무총리 비서실 명의로 작성한 〈국무총리 훈령 제24호〉에 담긴 것처럼 공무원의 다방이나 요정 출입을 단속하기도 하고 카페, 빠, 카바레, 땐스홀, 당구장 등의 업소에 대한 풍속 영업 단속 법제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특정유흥지역 설정에 관한 건〉 기록을 보면 1958년에는 도심 전역에 흩어져 성업 중이던 유흥업소를 특정 구역으로 집중시켜 관리와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7





#1960년대 다방
공용 전화기, 맞선과 데이트가 교차하는 '사무·오락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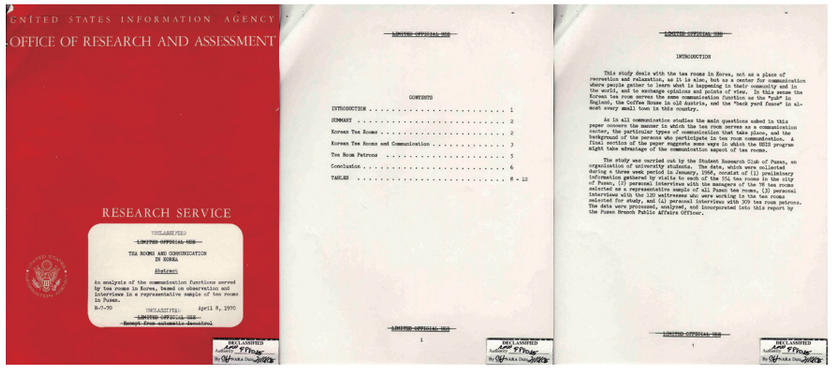
급격한 경제개발과 도시화, 대중문화 확산세가 뚜렷했던 1960년대, 다방 또한 본격적인 상업 공간이자 대중의 일상적 소비처로 변모했다. 실제로 중소업체 '사장님'들은 다방을 사무실로, 종업원인 '레지'를 비서 삼아 상거래를 텄다. 특히 전화기 보급률이 낮았던 시절이라 다방의 공용 전화기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1962년 시행된 업종별 통화량 조사에서 다방은 호텔, 극장, 음식점, 증권거래소 등을 누르고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1969년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다방은 약 5,000개가 넘었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지자 운영 주체에서도 30~40대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변두리와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다방은 맞선을 보고 데이트를 즐기는 오락 공간이 되어갔다.

이와 함께 1962년에 「식품위생법」이 제정, 다방 영업이 독립적인 업종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급증한 다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의 보건사회부 소속 식품위생국이 법령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각 지역 보건소 위생과가 전담하는 관리 체계가 수립된 것이 이 시기이다.



8



9

8
공보부 관보 제3170호.
1962년 1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위생법」이,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서 '다방영업'을 공식화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업종별 시설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9
한국의 다방과 커뮤니케이션 (The Rooms and Communication in Korea).
미국 공보처(USIA, U.S. Inforamation Agency)는 1968년 미국의 공보활동을 한국의 어떤 채널을 통해 진행하면 좋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방을 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1970년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직후 한국에는 다방이 10여 개에 불과했는데, 조사가 이뤄진 1968년에는 5,000개가 넘었다. 그중 서울의 다방은 1천여 개가 넘어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2의 도시인 부산 시내에 있는 다방 554개 전체를 조사하였다. 마담 78명, 레지(종업원) 120명, 고객 309명을 심층 인터뷰했고,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부산 시내 구별 다방 위치, 출입 고객의 특성, 방문 목적, 마담과 레지의 개인적 특성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다방을 차를 마시는 상업시설이 아니라 고도의 미디어 기능을 대체하는 비공식적 여론 형성의 최상위 허브로 평가했다. 또 상인과 고객, 관계자들이 전화나 대면으로 접촉하는 비즈니스의 신경망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미국 공보부는 미국 문화를 선전할 때 딱딱한 공식기관보다 이용자들이 정서적 안락함을 느끼고, 특히 지식인, 사업가, 학생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드는 다방을 활용한다면 거부감 없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10



11

10
다방영업자 위생관리 교육.
1970년대 서울시 공보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기록을 통해 위생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커피잔과 식기류 열탕 소독, 다방 내 환기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불량식품(무허가 제품 등) 사용 금지, 종업원의 건강진단(보건증) 이행 독려 등이었다. 생계형 다방 창업이 급증하면서 전염병 예방과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관념을 계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서울기록원 소장)

11
숙박 요식업자, 화투 소각.
다방을 비롯한 요식업장 등에서 화투 등의 사행성 행위, 퇴폐적인 거래들이 성행하자 정부가 '퇴폐풍조 일소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1972년 6월 1일 서울시 공보실이 생산한 사진에는 서울시내 숙박업, 요식업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한강에 모여 각 업장에서 수거한 화투들을 불태우는 현장이 담겨있다. (서울기록원 소장)

12
특정 시설 제한 구역 지정.
1972년 1월 28일 서울시 행정국 민원과에서 생산한 문서로, 당시 중앙부처인 건설부가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지역에 도심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방 등의 특정시설을 도심 바깥으로 보내라는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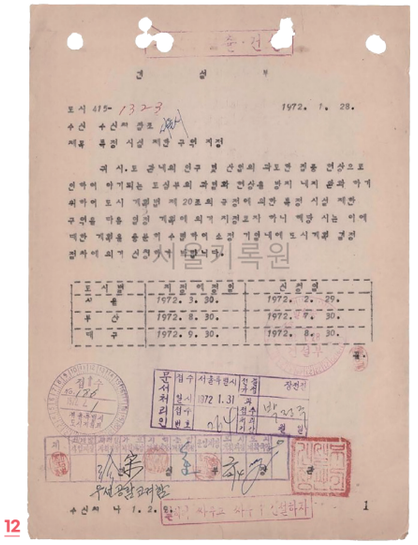
13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범 추방 계획(시경).
이 기록은 서울시 경찰국에서 보고한 문서를 참고해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에서 재작성한 문건으로, 1972년 6월 5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정신에 위배된 '반시민적직분사조사범'을 1972년 6월 6일부터 일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반시민적 직분사조사라는 것은 '각자가 처한 한국적 시민의 본분을 망각한 일체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에 '다방'이 지목되고 있어 흥미롭다. **(출처:** 국가기록원)

#1970년대 다방
낭만의 청년문화와 위생관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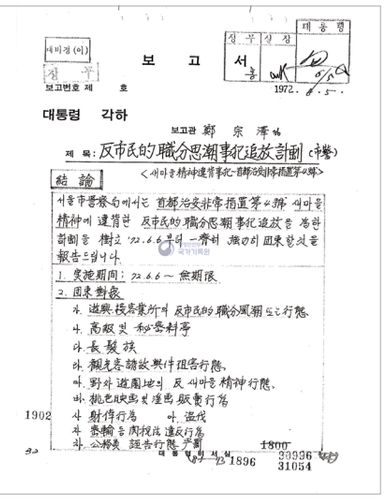
팝송과 포크, 통기타 음악, 뮤직박스, 디제이DJ, 신청곡 등의 단어로 소환되는 1970년대 다방은 실제 음악과 대화, 만남과 취향이 어우러진 당대 최고의 청년문화 주무대였다. 젊은이들은 1960년대 말에 생긴 뒤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던 '세시봉'을 비롯해 '심지다방', '청자다방', '오비스캐빈' 같은 음악 다방들에 열광했다. 다방은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상징하는 낭만과 히피 문화가 흘러넘치는 '해방공간'이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 다방은 국가의 강력하고 촘촘한 관리 아래 들어갔다. 1975년 지역 제한을 두었던 조치가 해제되자 서울 골목골목, 지방 소도시며 농촌 읍내마다 다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심야 영업과 사행성 행위, 접객 행위, 퇴폐 영업이 이뤄졌다. 1972년 6월 1일 서울시 공보실이 생산한 '숙박 요식업자, 화투 소각' 사진 기록을 통해 심각해진 불법 양태와 함께 이에 대응해 정부 규제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이 전 사회적 캠페인이 된 이면에 다방 물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커피에 담뱃가루를 섞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심야 영업 제한 등으로 제재하는 가 하면, 다방 종사자 대상 정례 위생교육, 보건증 감독 등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970년대 서울시 공보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기록 '다방영업자 위생관리 교육'을 보면 당시 위생교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일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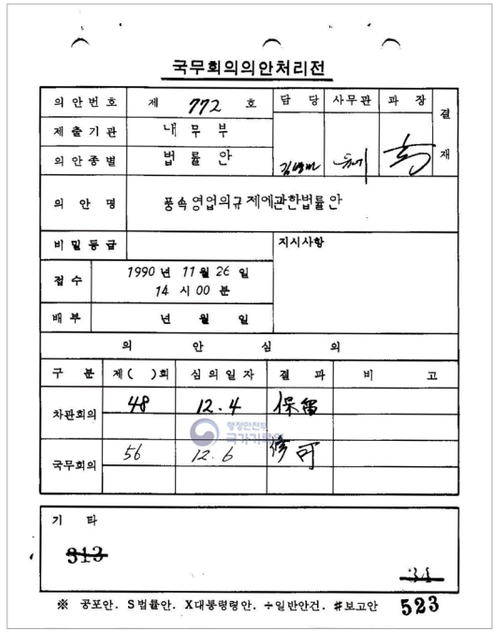


12



13

14



국무회의의안처리전

의안번호	제 772 호	담당	사무관	과장	결재
제출기관	내 무 부				
의안종별	법 률 안				
의 안 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안				
비밀등급		지시사항			
접 수	1990 년 11 월 26 일 14 시 00 분				
배 부	년 월 일				

의 안 심 의

구 분	제( )회	심의일자	결 과	비 고
차관회의	48	12. 4	原案	
국무회의	56	12. 6	修 可	

기 타

※ 공포안. S법률안. X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보고안 52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해당 기록물은 1990년 11월 26일 내무부에서 제56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문서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논의할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법률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풍속 저해 영업을 단속하는 법률 제정 시도는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955년 내무부는 카페, 빠, 카바레, 땐스홀, 다방, 당구장 등을 대상으로 한 「풍속영업단속법」을 입법화하려 했고, 1962년 풍속영업을 규제해 선량한 국민 풍속을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풍속영업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1980년대를 관통하면서 풍기 문란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의 결과로 1991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1980년대 다방
국산차와 커피자판기 그리고 티켓다방

서울 골목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진 1980년대 다방은 도시의 기본 인프라, 국가 이미지 관리 도구로 동원되고 활용되기에 이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다방에 녹차, 인삼차, 율무차 등 국산차 7종 이상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이다. 국산 전통차를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겠다는 발상이었다. 한편으로는 대중 동원과 장발 단속 등 통제가 심화되는 사회 분위기 아래 1981년에는 학림다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전국민주학생연맹이 기소되는 이른바 '학림사건'으로 떠들썩하기도 했다. 다방이 체재 감시의 대상이 되는 어두운 시대의 단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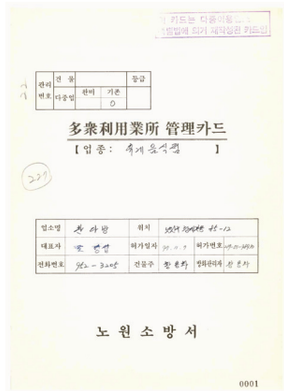
양적으로, 내용적으로 위상과 기능을 키워온 다방은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증가폭이 현저히 둔해졌다. 1982년 1월 5일, 37년간 지속되던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술을 파는 야간 업소들이 다방을 밀어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성행한 가라오케나 노래방 문화에도 타격을 받았다. 만남의 장소로는 호텔 커피숍이 급부상했다.

그 무렵 고등학교 매점이나 대학교 학생회관 등에는 커피자판기가 대대적으로 설치됐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자 다방은 더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사양 업종'이 되자 불법과 가까워진 다방이 늘었다. 1985년 전후로 다방 종업원을 성매매에 가담시키는 '티켓다방'이라는 퇴폐 영업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때부터 경찰의 다방 단속이 위생에서 풍속으로 이중화되었다.

15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환다방.
1997년 11월 7일 노원소방서가 생산한 문서이다. 다방은 다방영업으로 별도 관리되어 왔으나 1992년 휴게음식점으로 흡수되었다. 위생 및 안전상의 이유로 다방은 업소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재작성하면서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에는 업소의 소유관계, 소방시설 현황, 업소가 들어선 위치와 내부 평면도 등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정기적으로 다방을 대상으로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덧붙여 가면서 관리되고 있다. (서울기록원 소장)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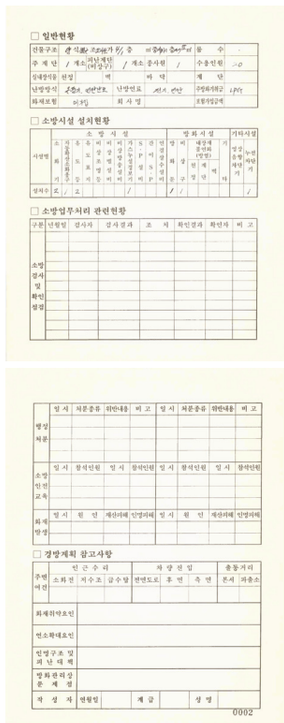


多業利用業所 管理카드

【 업종 : 휴게 음식점 】

노 원 소 방 서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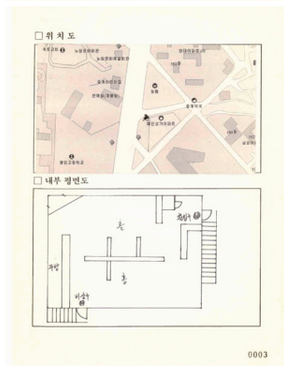
□ 일반현황

□ 소방시설 설치현황

□ 소방업무처리 관련현황

□ 경방계획 참고사항

0002



□ 위 치 도

□ 내부 평면도

0003

#1990년대 다방
이름을 잃고, 자판기와 노래방에 밀려나고

1992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30년간 유지되던 '다방영업'이라는 독립 업종명이 사라졌다! 1990년대 다방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화이다.

다방 영업은 공식 문건에서 과자점 영업과 함께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통합되었다. 1997년 11월 7일 노원소방서가 생산한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환다방' 문서에 다방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시민의 일상 구석구석까지 커피자판기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88서울올림픽 이후로 서구식 프랜차이즈 카페와 커피숍이 다방의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에 1997년 IMF외환위기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서민 소비가 위축됐다. 1980년대 4만5,000개에 달하던 다방은 9,000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커피는 자동판매기나 편의점으로, 만남의 공간은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으로, 음악 감상은 노래방으로, 업무는 피시방이나 사무실로, 통화는 휴대폰으로, 그동안 다방이 담당해왔던 사회문화적 기능들이 하나하나 대체됐다.

그렇게 법적인 이름을 잃고, 손님을 잃고, 경제적 기반을 잃고, 사회문화적 공간이라는 이미지까지 잃은 다방은 이제 '복고'를 느낄 수 있는 희소한 공간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를 지나며 다방시대 또한 저물어 갔다.

여전히 기록되고 소환되는 다방의 다방면

송연정 | 시민기록가

1997년 다방을 운영하는 이들 스스로 이름을 반납했다. 기존 다방 업주들의 연합체였던 '대한다방업중앙회'가 '대한휴게실업중앙회'로 명칭을 바꾸며 행정상 '다방'이라는 업종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70년째 문닫지 않고 영업 중인 다방처럼 사라지지 않은 다방이, 그 기억들이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흐르고 있다. 여전히 예술가의 눈에 다방은 찍고, 그리고, 노래하는 뮤즈가 되고, 건축가의 눈에는 매혹적인 디자인의 향연장이다. 성지순례하듯 전국의 다방을 기록하는 이들도 있다. 대규모 전시나 스토어가 열리기도 한다. 양탕국, 가비, 가배, 코히 등 다양하게 불린 커피의 이름만큼이나 다방은 다방면에서 아직도 그 매력을 내뿜고 있다.

아직도 다방!







카페 미네르바

'카페 미네르바'는 1975년에 신촌에 처음 생긴 원두커피 전문점이다. 당시 연세대 대학원생 친구들이 모여 사이폰으로 원두 커피를 내리고 클래식 음악을 즐기던 공간으로, 짜장면이 500원 하던 시절 원두 커피 한 잔 가격이 1,500원이었으니 누군가에겐 취향으로, 누군가에겐 사치로 기억되는 곳이다. 2000년에 현 주인장이 인수할 때 전 주인에게 빛바랜 작은 노트 한 권을 물려받았는데, 199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이 노트에는 커피 내리는 법, 칵테일 제조법, 거래처 전화번호 등의 영업 정보가 가득했다고 한다. 초창기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향수를 자극하는 다방이다.

학림다방

1956년 서울 동숭동에 문을 연 '학림다방'은 서울에 남아 있는 곳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대학생들이 시국을 논하고 글을 쓰던 아지트였다. 또 김동리, 박목월, 전혜린, 이청준, 김지하, 황석영 등 한국 현대 문단과 예술계 거목들이 상시로 드나드는 사랑방이기도 했다. 단순한 카페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지성의 공간,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자 지금도 사랑받는 학림다방은 2013년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되었다.

을지다방

1985년 을지로 을지면옥 2층에 문을 연 '을지다방'은 공구 골목으로 이름난 지역적 특성답게 금속, 인쇄, 공구 산업에 종사하는 장인들과 상인들이 주고객이었다. 2010년대 중후반, 을지로가 '힙지로'로 불리며 청년, 예술가, 인디 문화의 거점이 되면서 을지다방은 옛 다방의 분위기와 감성을 즐기는 레트로 명소가 되었다. 2021년에는 BTS가 〈시즌 그리팅2021〉 포토북 화보를 촬영해 해외 팬들의 성지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2022년 3월 세운지구 재개발로 건물이 헐리면서 현 위치로 옮겨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방기록자들

낡고 때묻어 가는 과정마저 남기고 싶어 성지순례하듯 전국의 다방을 찾아가고 기록하는 다방 기록자들이 있다.

전주 토박이인 작가 '오힘'은 오래된 문화 공간인 다방이 잊히는게 아쉬워서 그 정다운 문화를 기록하고자 2017년부터 전주의 다방을 찾아다닌 기록을 모아 『전주 다방에서 만나』를 펴냈다.

시대별 고유의 디자인 문화가 축적된 공간으로서 다방을 발견해온 건축가 '홍윤주'는 『탐방다방』에 매혹의 경험을 담아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예슬은 서울은 물론 온세상 커피 맛집을 돌아다니며 맛본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공간과 분위기를 그림으로 기록한다. 이를 묶어 2023년에 『월간 다방기행-서울편』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과정을 이수한 시민 이선희 씨, 김은영 씨, 민지희 씨가 청계천 일대 다방 3곳을 대상으로 한 기록화 작업에서 다방과 상인들의 연대감과 의리 등을 채록한 구술 기록 및 수집 결과를 서울기록원에 기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

1
시민 이선희씨가 청계천 일대 다방을 기록화한 과정을 발표하고 있다.

2
『전주 다방에서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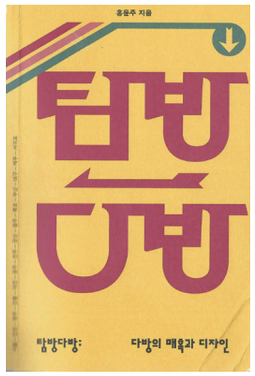
3
『탐방다방: 다방의 매혹과 디자인』

4
『월간 다방기행-서울편』
김예슬의 일러스트는 미식콘텐츠플랫폼 '메티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https://metizen.co.kr/서울-다방-기행문/

2



3



4



박람회, 전시로 꾸준히 소환되는 다방의 기억

시장 규모 약 17조 원, 성인 기준 1인당 연간 소비량 약 416잔…



커피산업 생태계를 집약한 여러 지표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커피 사랑을 증명한다. 해마다 커피박람회와 카페쇼가 열리고, 급기야 '커피공화국'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학자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상실된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함께 빠른 각성이 필요한 피로사회, 독립 공간을 원하는 개인의 욕망 등을 카페라는 사적 공간을 통해 복원하려는 한국인 특유의 열망이 버무려진 인문학적 현상으로 분석한다.

커피에 대한 광범위한 선호는 꾸준히 다방을 다시 불러내는 배경이기도 하다. 방대한 커피 문화를 전시한 〈커피社會Winter Coffee Club〉, 〈다방전성시대GOLDEN AGE OF TEA HOUSE〉, 〈요즘커피 WHAT A Brew-TiFUL DAY!〉 〈옛날다방 팝업스토어Korean Retro Cafe Pop up〉 등에서 다방은 시간성과 장소에 대한 기억과 추억, 사물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소환한다.







믹스커피의 변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 최초 발명 기록 '커피믹스동서식품이 판매한 최초 상품명은 맥스웰하우스 커피믹스'. 탄생 50년을 맞은 커피믹스는 현재도 1년 누적 판매량 53억개, 1초에 170개가 팔려 모두 이어붙이면 지구를 15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거리가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국민 커피'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을 빛낸 발명품' 선정 기록, 동서식품 공식 발표 기준.

인기 비밀은 '둘, 둘, 셋' 황금 비율에 있었다. 그러니까 커피 2스푼, 크림 2스푼, 설탕 3스푼 비율로 한국인이 가장 중독성을 느끼는 '궁극의 다방 커피' 맛을 재현, 1976년 대중적인 상품화까지 성공했다. 커피 스틱을 뜯어 물만 부으면 어디서든 10초 만에 마실 수 있는 믹스 커피의 맛과 편의성은 고도 성장기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하게 주파수가 맞았고, 일의 능률을 올려주는 최고의 에너지 드링크 역할을 했다.

그 사이 여러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프랜차이즈 상품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믹스 커피를 재해석해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서울에서 가장 '힙'한 성수동에 믹스 커피 전문 매장을 여는 파격적인 시도로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킨 '뉴믹스커피'가 그 주인공. 감각적인 패키지, 에코백이나 우산 같은 다양한 굿즈까지 내놓으며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뉴믹스커피는 기성세대의 전유물에 머물던 믹스커피를 젊은 세대와 외국인이 호감을 갖게 하며 또 하나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newmixcoffe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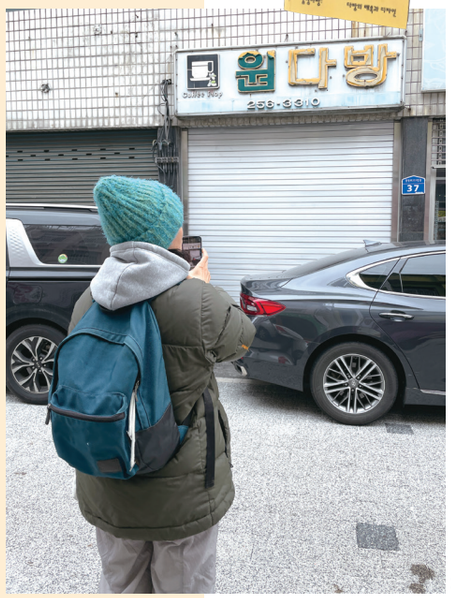
건축가가 왜 다방에 매혹되었냐면요...

송추향 | 한사람연구소 대표

『탐방다방』 저자 홍윤주의 '다방 예찬'



1



2

1
『탐방다방』을 비롯해 『진짜공간』등 홍윤주 대표가 펴낸 책들

2
다방 탐방을 다니는 중인 홍윤주 대표

그 옛날 다방은 시간을 '향유하는' 곳이었다. 차 한 잔 값으로 오후를 통째로 누릴 수 있는 곳. 달달한 커피가, 영양 가득한 쌍화차가, 묵신한 소파가, 어두운 조명이, 거기에 누군가와의 이야기와 무심한 듯 하다가도 불쑥 다가와 말을 섞는 마담이 그 시간을 진하게 만들었다. 커피숍으로, 카페로 바뀐 간판만큼이나 다방은 이제 아득한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고여 있는 다방을 찾아 전국을 다닌 '귀한' 이가 있다. 건축과 일상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작업으로 풀어내는 건축가이자 생활건축연구소의 대표인 홍윤주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다방 100여 곳을 탐방하며, 그 독특한 개성과 디자인을 수집했다. 그 기록을 쫀쫀하게 엮어 발간한 『탐방다방』(프로파간다, 2024)은 순식간에 1960년대에서 1980년대를 풍미하던 다방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한다.

『탐방다방』, 다방 탐방 6년 결과가 한 권에

"평소 노는 것과 유흥에 관심이 많아서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클럽도 가고, 어르신들의 놀이 문화가 있는 다방도 한 번씩 찾았어요. 그러면서 거창한 공간학적 탐색이 아니라 오래된 공간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주는 문화적 재미를 알게 됐어요. 나무 평상에 앉아서 다방 커피를 마신 적도 있는데, 그 독특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3

3
간판과 찻잔, 메뉴판 등 다방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기록이자 숙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디자인 언어들이었다. (사진 제공: 홍윤주, 프로파간다)

무엇보다 다방은 100여 년 동안 숙성되어온 매혹적인 디자인 요소, 언어가 그득한 공간이었다.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출판사 편집자와 머리를 싸매고 9개 항목으로 추리는 데 성공했다. 노랑 바탕에 빨강 글자가 강렬한 『탐방다방』은 펼치는 즉시 다방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름이었어요. 다방 간판 디자인과 이름으로 공간의 정체성과 분위기가 가늠되더라고요. 다방의 위치가 2층이나 지하라 이용하게 되는 계단도 의미심장해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소파는 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찻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세트로 내는 찻잔과 받침 세트 조합이 잘 어우러진다 싶으면 그 다방의 품격이 느껴져요. 깨지면 짝이 안맞으니까 애초에 100개씩 장만한 다방도 있더라고요."

기능적으로 핵심 공간인 주방과 계산대도 개성이 넘쳤다. 주방 조리대 상부에 각양각색으로 설치된 내림벽, 모서리를 동그랗게 처리한 계산대 모서리 모양, 그 위에 놓인 금전출납부나 전화기 같은 것들이 모두 음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손님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지를 고민한 업주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수화나 붓글씨 문구를 담은 액자를 보면 다방이 문화와 예술, 철학이 깃든 곳을 지향했던 것 같았고, 용도별로 다양한 메뉴판은 이용객의 변화나 시대별 차이를 담고 있는 기록이었다.

이외에도 가구, 바닥재나 천장재 같은 인테리어 자재들, 소파의 질감 같은 것도 들여다 볼수록 읽어낼 수 있는 '언어'들이 적지 않았다. 2011년부터 홍 대표가 운영하는 누리집 〈진짜공간〉에는 그가 포착한 다방과 디자인 언어가 그득하다.

탐방과 탐정 사이 어디쯤, 다방을 기록하는 일의 즐거움

그러니 슬슬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에 '꽂히면' 불편하고 힘든 일마저 감수한다지만 무려 6년이 넘도록 계속된 '전국 다방 여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까.

"우선 카카오지도에서 '다방'을 키워드로 검색해 위치뿐 아니라 로드뷰로 간판이나 주변 풍경까지 살펴요. 지도에 표시가 있어도 로드뷰를 보면 간판이 제대로 없는 곳이 많거든요.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어도 '신장개업' 화분이나 홍보 표지판 등이 있는 다방은 빼요. 룸살롱처럼 유흥업소 같은 분위기일 확률이 높거든요. 주변에 모텔이 즐비하거나 맥주나 소주 같은 주류 안내가 붙어 있는 곳도 제외했어요."

'순수(?)한' 다방 본래의 매력을 가진 곳을 발견하기 위한 사전 점검 활동을 마치면 다방 지도를 바탕으로 탐

방 동선을 짜게 된다.

"사전에 아무리 걸러도 현장에 가면 또 달라 일단 입구부터 살펴요. 맛집을 판단하는 감각과 비슷할 거예요. 유리창이나 출입구가 폐쇄적일수록 다방이라기보다 퇴폐업소일 가능성이 높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도 계속 머물 곳인지 바로 나가야 할 곳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해요. 일단 있을 만하다 싶으면 다방 전체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해요. 천천히 마시면서 공간을 관찰하는 거죠."

이 정도면 '탐정'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 과정을 통과한 대상이 될 만하면 '마담'에게 말을 걸어 본다.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 반응은 대부분 '이런 데 찍을 게 있어?'이다. 그때마다 홍 대표는 챙겨 간 『진짜공간』(2017)을 슬쩍 꺼냈다. 발이 쩍쩍 달라붙을 것 같은 노란 장판이 깔린 방,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고쳐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오랜 가구들…. 그간 홍 대표가 수집한 아름다운 공간의 순간이 한가득 모아놓은 책을 펼쳐보이면 대개 허락했다. 하기야 책으로 명함을 대신하는 일이 그리 흔한가!

다방 때문에 한국이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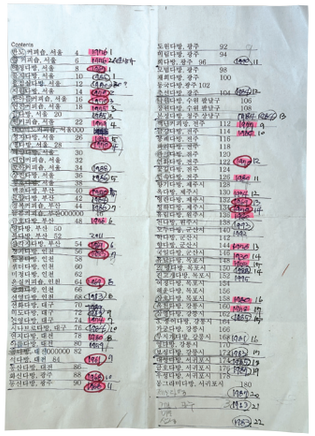
"처음부터 다방 기록을 모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몇 번의 재미 후에 자연스레 그냥 갔고, 봤어요. 지금과는 다른 문화잖아요. 겪어 보지 못한 독특한 문화로 인식되었어요. 오래된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경험 자체가 웃기고 특별했어요."

그러다 2018년 〈커피사회〉라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방을 기록하게 됐다.

"자료를 찾다보니 다방 하나로도 한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방에 죽치고 앉아 이야기하고, 예술을 하고, 출판기념회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일종의 공론장이었던 거죠. 그 시절 '한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떠드니까'라고 한 외국인도 있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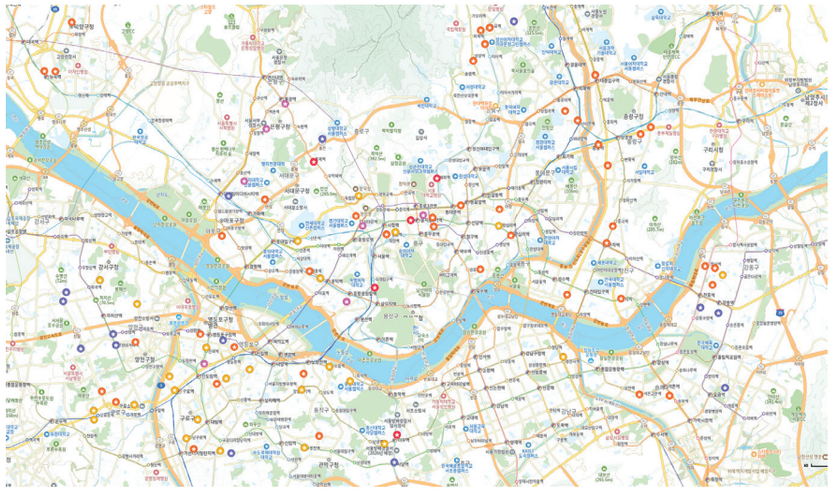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록은 1951년 6·25전쟁이 한창일 때 부산에서 임응식 작가가 찍은 다방 사진이었다.

4



홍윤주 대표가 직접 작성한 다방 탐방 목록

5



온라인 지도에 표시한 서울의 다방지도

6



1951년 부산의 다방 모습 ⓒ임응식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성들이 다방에서 우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게 왜 충격적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은 대부분 암울한 기억으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예술가들은 사진을 찍고,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어, 왜 이런 걸 안 배웠지?' 배신감이 들었어요. 배운 대로라면 맥없고 공백이어야 하는 그 시절, 많은 예술가들이 고심하고 노력했던 것을, 그 힘을 누군가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새로운 시선으로 보니 지역마다 다방의 분위기도 달랐다.

"광주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구도심지 대로변에 자리한 곳은 커피나 쌍화차를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다방들이 많아요. 거기서 한 블록 뒤로 가면 이제 바둑과 장기를 두기 시작하세요. 성격이 다르죠? 한 단계 더 가면 화투가 등장하고요. 그렇게 층위가 좀 보이더라고요. 부산이나 제주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어요. 그분들 표현대로라면 '스탭 언니'들이 서너 명이나 됐어요. 요즘은 마담 한 사람이 운영하는 다방이 많거든요."

역사의 뒤편으로 자꾸 숨죽여가는 다방. 하지만 엄연히 현재적 공간이기도 한 그곳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구 미도다방에 마담 사장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정이라는 거, 그거 한국사람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요즘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정붙이고 있을 곳이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나누고, 살갑게 말도 붙이고, 끌리는 이유가 다방의 그런 정서랄까, 기능 때문인 거 같아요."

다방은 어쩌면 오래된 공간이 아니라, 오래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공간인지도 모르겠다.

건축가가 안내하는 '다방활용법'

건축가로서 홍 대표는 '사이'에 자꾸만 눈길이 머문다. 거대하고 빛나는 건물 사이, 너무 작고 너무 흔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주변 공간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좋다-나쁘다, 예쁘다-밉다 같은 기준을 지우고 지금 여기, 내가 사는 곳부터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동네를 다니고 공간을 기록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로 궁금한 곳이 큰길보다는 좁은 골목길이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소들이었어요. 어쩐지 만든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들, 웃기거나 어처구니 없거나 재밌는 것들,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 좋아요. 너무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마음이 갈까, 왜 이쁠까 잘 설명하고 싶어서 미학과를 갈까도 했어요.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웃음)"

6

그래서 홍 대표에게는 카페 뒷전으로 밀려난 다방이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겠다.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커피사회〉 전시에 '다방활용법'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하면서 남긴 글에서도 그 마음이 은은하게 읽힌다.

"여행을 하면 들르고자 하는 곳에는 시장, 댄스클럽, 다방이 있다. 다방에 들어갈 때에는 긴장이 있다. 그곳이 하필 티켓다방일 수도 있고, 문 열자 주목하는 시선에 기죽지 않고 들어갈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상업공간이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특정 세대가 전유하기에 높이 느껴지는 문턱, 지나면 별거 아닌 그 순간을 넘어서면, 옥빛 찬란한 소파에 앉아 스타벅스에서는 절대 못 느낄 정서적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다."

건축가 홍윤주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번쩍번쩍한 '그들'의 공간이 아니라 문턱이 반질반질한 '우리'의 공간을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세련될 수 있을까 싶은 카페들 틈바구니에서 '다방'을 조명하는 마음, 그 공간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매혹적이다.

더 이상의 행정 공백 없다!

김수영 | 한국외대 대학원 기록정보학과 박사과정

전산실의 불, 행정의 공백

2025년 9월 26일 저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경미했지만, 사고의 파장은 행정 전반을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났다.

정부 업무 시스템 709개가 한꺼번에 멈추면서 정부24 포털정부의 민원 서비스와 정부 혜택(보조금24), 정책 및 기관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이 중단됐고, 모바일 신분증 앱은 빈 화면이 됐다. 중앙 부처 공무원 약 12만 5천 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G-드라이브'의 8년치 업무 자료 858TB는 끝내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백업 서버마저 같은 건물 안에 있던 탓이었다.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다'는 디지털 행정의 편리함이 거대한 취약점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사고 발생 초기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2주'면 된다던 예측은 '최소 4주'로 늘어났고, 결국 709개 시스템이 모두 복구된 것은 화재 발생 95일이 지난 12월 30일이었다. 수사 결과 작업 부주의가 원인으로 밝혀진 이 사건은 기관장을 포함한 관계자 19명의 검찰 송치로 마무리됐다.

전산이 멈춰도 행정은 멈추지 않는다

이 사건이 서울시 정보시스템과에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전산이 멈추면 행정도 멈추는가?' 답은 명확했다. 행정은 멈출 수 없다. 아니 멈춰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2026년 2월 2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업무관리시스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발표했다. 전산 장애 시 문서번호 부여부터 결재 경로, 관인 예외 처리, 시스템 복구 후 전자 재등록과 기록물 이관까지 종이 문서로 행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전 과정과 대응 내용을 꼼꼼히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전산 장애 인지 및 보고 체계, 부서별 역할 분담, 비상연락망 운영 방식 등 실제 상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산 장애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 복구 이후에도 업무 누락이나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매뉴얼의 최고, 최우선 목표는 디지털이 멈췄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문서 관리의 연속성과 기록의 무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평소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이 가치들이 화재 한 건을 계기로 무너지는 상황을 거치면서 비상계획을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전 부서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보완 작업을 거쳐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중앙 부처부터 지방정부의 행정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후과를 남겼다. 사진은 당시 화재 사고를 전하고 있는 뉴스의 한 장면을 갈무리한 것이다.

잘 꾸민 문서에서 정확히 읽히는 문서 시대로

수기문서 매뉴얼이 '전산 없이도 굴러가는 행정'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시기 서울시 디지털정책과가 준비한 'AI 리더블AI Readable 문서 서식'은 '전산과 더 잘 맞물리는 행정'을 위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 신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공문서에는 새로운 작성 기준이 적용됐다. AI가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와 문단, 번호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기존 공문서는 관계자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배치하느라 표 안에 표, 합쳐진 셀, 이미지형 텍스트 등 AI가 판독불가한 요소가 상당수 존재했다. '잘 꾸민 문서'에서 '정확히 읽히는 문서'로의 전환인 셈이다. 3월부터 정책보고서와 주요 계획문서에 먼저 적용되었고, 이후 전 부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같은 질문을 향한 두 가지 대답

아날로그 대비책과 AI 친화 문서 설계, 화재로 민낯을 드러낸 기록관리의 취약성에 서울시는 두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수기 매뉴얼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을 최후의 보루로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환경에 맞게 기록관리 업무를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두 접근이 공유하는 전제는 분명하다. 시스템이 완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여 시스템이 멈추더라도 기록은 이어져야 한다는 역할 인식이다.

물론 이러한 대응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수기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클라우드 분산 저장이나 인프라 고도화 같은 근본적인 투자가 미루어져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수기 처리는 장애를 버텨내는 방편이지, 시스템의 취약성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일깨워준 것은 디지털 행정의 한계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은 이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오늘은 내가 기록물 보존요원~!

박유경 | 시민기록가

좋아하는 짝꿍에게 받은 손편지, 초등학생 때부터 꼬박꼬박 써온 일기장, 돌아가신 할머니와 찍은 사진, 돌잡이 시간에 아기가 지폐를 잡자 모두가 폭소를 터트리는 돌잔치 영상…. 사는 동안 소중한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한 존재는 수많은 추억과 기억의 순간을 붙잡고 있는 기록으로 풍성해지고, 조금 과장하면 자신이 남긴 기록으로 개인사가 증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록 또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찢어지거나 물에 젖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 사진도 나이를 먹어 누렇게 열화되고 바스라진다. 오래된 영상 파일은 오류를 일으키고, 아예 재생할 수 있는 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곳이 있다. 한 사회와 지역, 한 시대, 한 국가의 중요 기록물에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 최적의 상태로 보존·관리하고, 훼손되었을 경우 섬세하게 치료하고 정교하게 복원해 다시 사회적 자산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록 전문 기관이다. 서울기록원이 그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유의 역할에 더해 서울기록원이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이들과 보존·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기록물 보존요원으로 임명합니다'이다.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전, 오후 2회씩, 총 12회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의 6월 13일 오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았다.

초등 4~6학년생 10명이 참여한 '기록물 보존요원으로 임명합니다' 현장은 기록이 어떤 이유로 손상되는지, 그럴 때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등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보존·복원 방법과 함께 전문 직업인의 세계를 경험하고 배우느라 떠들썩했다.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온 5학년생 라이언의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다.

'초등 5년생 라이언'의 어린이 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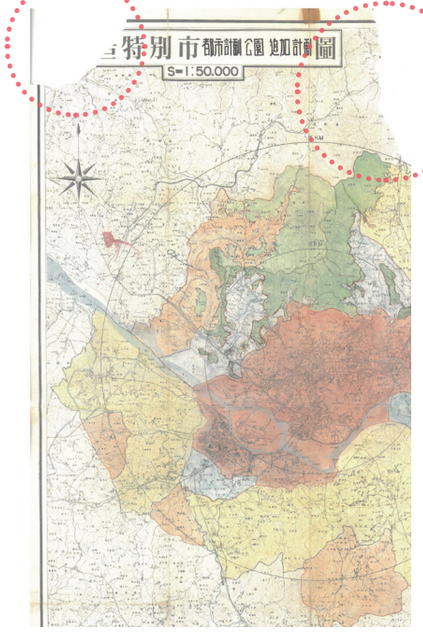
1 '기록물 보존요원'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안녕,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라이언이라고 해.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기록물 보존요원이 될 수 있어 너무 신나! 내가 어떻게 기록물 보존요원이 되었는지 말해 줄게!

- **이름:** 라이언
- **나이:** 열두 살
- **사는 곳:** 싱가포르
- **특이사항:** 2026년 어린이 기록물 보존요원으로 임명됨



2 손상된 기록물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가 상했나…?
이런! 양 귀퉁이가
찢어져 버렸군!

기록물과 보존 개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오늘 기록물 보존 수업에서 참가자들에게 맡겨진 기록물은 '서울시 도시계획 공원 추가 계획도'야. 자세히 보니 양쪽 귀퉁이가 찢어졌는데, 한쪽은 찢어진 부분 크기가 작고 찢겨나간 조각이 남아 있었어. 다른 한쪽은 크게 찢어진데다 해당 부분의 조각마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

종이 기록물이 훼손되는 사례

종이는 찢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잘 보존하려고 테이프를 붙여두었다가 오랜 시간 테이프가 녹아 달라붙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산화되어 누래지고 아랫부분이 찢어진 모습



가운데 붙인 테이프 때문에 훼손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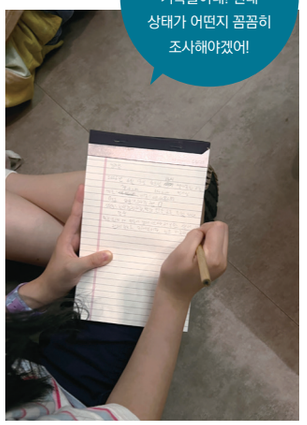
3 복원할 기록물을 조사해 볼까요?

이 기록을 잘 복원하기 위해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었는지 조사하는 거야. 마침 서울기록원 2층 <기록으로 산책하기-서울의 공원> 전시에 원본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살펴보러 갔어.
'서울시 도시계획 공원 추가 계획도'는 1963년에 제작된 지도였어. 1960년대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도시개발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던 시기였대. 이 지도는 그 당시에 서울의 공원과 녹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었어. 책임감이 팍팍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

친구들과 〈기록으로 산책하기-서울의 공원〉 전시를 보며 기록물의 정보를 배우고 있어.



우리가 복원해야 할 기록물이 진짜 중요한 기록물이네! 원래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조사해야겠어!



4 기록물 복원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것들

기록물 복원 작업에는 전문지식과 복원도구들이 필요해.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자질이 있어야 한대. 첫 번째는 '잘 관찰하는 눈', 두 번째는 '알맞게 움직이는 손', 세 번째는 '협동심'이야.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친구들과 재미있는 훈련을 했어.

거울놀이로 눈의 힘을 키우자!



기록물을 보존하는 일을 잘하려면 우선 기록물이 어떤 상태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눈이 아주 중요해. 관찰하는 눈을 키우기 위해 친구들이 하는 동작을 잘 관찰해서 똑같이 따라 하는 '거울놀이'를 해봤어.

탁구공 빙고놀이로 손의 힘을 키우자!



기록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작업은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 가로·세로도 맞추고 손상된 부분과 복원시킬 부분의 아귀도 딱 맞아야 하거든. 알맞게 움직이는 손을 키우기 위해 '탁구공 빙고놀이'를 했어. 탁구공을 던져서 계란판에 쏙쏙 넣어서 얼마나 빨리 한 줄 빙고를 만드느냐가 핵심!

꼬리잡기놀이로 협동심을 키우자!



기록물이 손상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에 따른 복원 방법도 여러 가지였어. 더 적절한 복원 작업을 위해 여러 기술자들이 같이 합심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해. 우리 팀의 꼬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절로 협동심이 길러졌어.

5 이제 찢어진 기록물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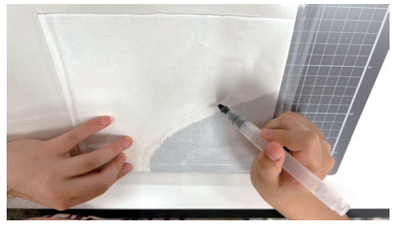
우리에게 맡겨진 기록물을 꼼꼼히 살펴보니 두 군데 찢어진 부분이 있었어. 똑같이 찢어져 있어도 복원하는 방법이 똑같지는 않다고 해. 너무 많이 찢어지고 이어붙일 조각이 없을 때에는 빈 곳을 메꾸는 '보강' 작업을 하고, 조금 찢어지거나 이어붙일 조각이 있을 때에는 보존 테이프로 붙여서 복원해. 아, 이때 쓰는 테이프는 점착제가 일반 테이프와 달라 오래 붙여놓아도 종이가 놀러붙지 않아.



①보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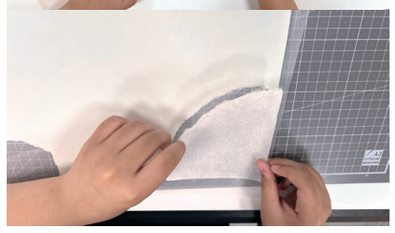


너무 많이 찢어져 비어 있는 곳을 보강할 때에는 한지를 활용했어. 찢어진 부분에 한지를 대고 찢어진 면을 따라 반죽을 하거나 재료를 섞는데 사용하는 스파출라로 눌러 표시해. 이때 실제 찢어진 면보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더 여분을 두어야 해.



다음은 스파출라로 표시한 선을 따라 물붓으로 따라 그리는 순서야. 물붓이 지나간 자리에 물이 묻은 부분 한지가 조금 약해져. 그때 손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어.





그리고 잘라낸 한지에 풀칠을 하고, 기록물의 손상된 부분에 맞춰 이어붙였어.

②복구하기



기록물 손상이 적은 곳은 특수 제작된 보존용 테이프로 붙여서 원상복구했어.

③ 마무리



6 손상된 기록물이 이렇게 복원되었습니다!

찢어진 지도를 복원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 그래도 복원을 마친 기록물을 보니까 뭔가 뿌듯하고 신기했어! 또 한참 동안 지도로 씨름하는 동안 애정도 생긴 것 같아. 한자로 된 글씨는 소리 내어 따라 읽어보고, 잘려 나간 숫자가 무엇이었는지 상상도 해보고, 진짜 이 지도에 표시된 계획대로 공원과 녹지가 생겨났을지도 궁금해지고. 친구들과 소감을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기록은 자꾸 꺼내보고 손보면서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

공간의 가치를 하나의 캡슐에!

김수영 |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황지은 테크캡슐 대표

3D 스캐닝, VR 기술이라는 열쇠로 여는 공간 기억

1
재개발로 사라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를 3D 스캐닝과 통합 조사로 기록한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기록화 사업〉. 서울시가 발주하고 구가도시건축, 장소기억프로젝트, 테크캡슐이 협업했다. ©테크캡슐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냐고요?

'테크캡슐'이라는 이름을 접한 건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기록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서였다. VR(Virtual Reality)로 구현된 아카이브는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세운상가 일대를 새로운 공간으로 재인식하게 했다. 정밀한 3D 스캐닝과 영상으로 재현된 낯선 공간 이미지는 그곳에 대한 관심 여부를 떠나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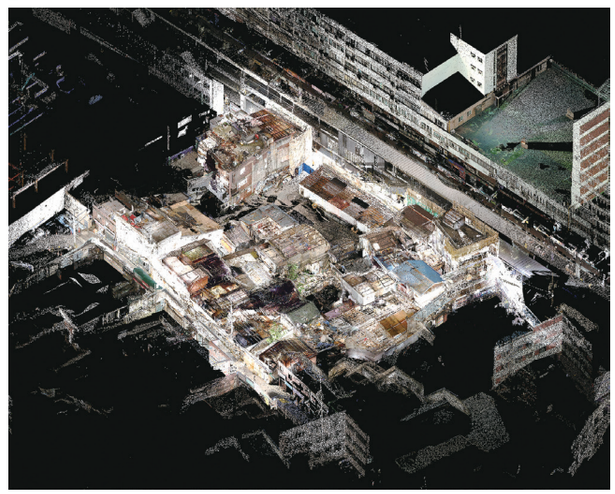
VR로 만들어진 공간을 마우스 포인터로 샅샅이 훑다 보면 어느덧 기록자의 시선으로 그 현장의 생동감과 사람들이 공간에 쌓은 시간을 맞딱뜨리게 된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남기느냐"고 묻던 이들도 테크캡슐의 결과물을 보며 현장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황지은 대표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다가도 그곳의 생기를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면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고요."

청계천 기록화만 해도 기존에 이미 기록화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3D 스캐닝'라는 기술과 방식의 참신함 덕분에 추진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기술을 적용했을 때 문이 열리는 경험이 종종 있었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공간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면서, 공간의 기억을 공공의 자산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죠."

1



기술을 통해 공간과 기억, 그리고 사람을 연결한다는 황 대표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기록을 위해 찾아간 현장에서 3D 스캐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공간 기록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설득력이 되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닫혀 있던 실무적인 협력의 문을 열어왔다.

공간을 짓는 일 너머 경계를 오가는 기록자

황지은 대표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전통적인 건축학의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테크캡슐은 재건축을 앞둔 반포주공아파트, 호텔 힐튼서울, 성수동 등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히 변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간을 3D 스캔, 드론 매핑, 디지털 그래픽으로 기록해왔다.

"중요한 게 뻔한데 아무도 손 쓰지 않는 공간에 마음이 갔어요. 그런 마음이 쌓이다보니 제도권 밖에서 기록 없이 사라지는 동시대 공간들을 기술의 힘으로 메울 수 있겠다는 틈새가 보였어요."

이런 시선은 IMF 외환위기 직후 건축계의 지각변동 속에서 싹텄다. 갓 실무를 시작한 시기에 마주한 경제 불황은 역설적으로 공간을 '짓는 일' 너머를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년의 실무를 마친 그는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탐구하는 환경심리학을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대학원에서 만난 스승 최진원 교수의 수업은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실무 현장에서 누구보다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자신 있는 그녀였지만, 도구 그 자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공학자인 최 교수의 지적 자극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다. VR이 도입된 초창기에 도구 자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최 교수의 연구실을 거치며 황 대표는 기술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다. 시스템과 도구를 직접 구축하는 '개발자의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공간을 VR로 구현하며 건축계의 '콘텐츠 피플'로 거듭난 그는 카이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당대 최고 기관의 기술진과 협업하며 "이것이 나의 길"임을 확인했다.

이런 확신을 품고 떠난 하버드 디자인 스쿨에서 학문적 깊이를 더한 그는 2018년 서울시립대 디자인정보연구실을 모태로 테크캡슐을 창업했다. 이후 영상과



2



3

2 · 3
피크닉·CAC 공동 기획으로 열린 전시 《힐튼서울 자서전》 모습. 테크캡슐은 철거 현장에 밀착해 기록한 결과를 영상 〈상실의 기준〉을 통해 전했고, 호텔 전체를 3D 스캐닝해 디지털 공간으로 이행시킨 〈잠재 생동〉도 선보였다. ©테크캡슐

4 · 5
재건축을 앞둔 반포주공아파트의 이주 직후 모습을 담은 3D 스캔 및 영상 기록 ©테크캡슐

미디어아트, 콘텐츠 창작자와 팀을 이루어 기술을 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록된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활용될 수 있을 지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3D 데이터는 단순한 디지털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언어였다.

'콘텐츠 피플'의 거대한 3D 기록과 서울기록원의 만남

물론 출발부터 기록이 목적은 아니었다.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를 맡으며 세운상가 일대를 배움의 현장으로 삼으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황 대표는 세운상가 역사를 일궈온 현장의 기술 장인들과 학생들을 연결해 도심 제조업의 경험을 전수하는 '세운캠퍼스'를 기획하며, 청계천 일대를 활력 넘치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2019년,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다. 민간 자본 유입과 함께 재정비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공들여 일군 네트워크와 활기찼던 공간들이 순식간에 철거 대상이 된 것이다.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현장 인프라를 지키는 활동이자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 믿었는데, 실상은 그 저변에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현실을 간과했다는, 요즘 표현으로 뼈아픈 현타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가 왔어요."

이 자성은 곧 사명감으로 이어졌고, 산업용 로봇이나 3D 프린터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창작자들의 조형 작업을 지원하던 테크캡슐이 '기록의 주체'로 피보팅변화하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여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계천 기록화 작업을 통해 쌓아 올린 데이터는 무려 8테라바이트에 달했다. 황 대표는 데이터를 생산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 기록이 서울시 여러 부서를 거쳐 서울기록원에 최종 안착하기까지 모든 매듭을 꼼꼼히 챙겼다. 단순히 결과물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데이터가 서랍 속에 묻히지 않도록 기술적 해제를 덧붙이며 부서 간의 소통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황 대표는 물론 여러 관계자가 데이터의 온전한 쓰임새를 고민한 덕분에 거대한 3D 공간 기록은 오래지 않아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물리적 해체와 가상적 이행 사이
호텔 '힐튼서울' 디지털 공간 기록화

테크캡슐이 수행한 주요 공간 기록화 사례로 '힐튼서울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다. 테크캡슐이 찾았을 때 호텔 '힐튼서울'은 이미 기능을 멈춘 '좀비 상태'나 다름 없었다. 40년 가까이 손님을 맞던 공간은 집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설비만 돌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다.

1983년 개관 이후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상징이었던 힐튼서울은 이미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지만, 황 대표는 기존과 다른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산의 풍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구조체 전체를 데이터로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이 작업은 2025년 가장 주목받은 전시 중 하나로 꼽힌 《힐튼서울 자서전》으로 결실을 맺었다. 철거 현장을 담은 영상 〈상실의 기준〉과 3D 스캐닝으로 구현한 〈잠재 생동〉은 물리적으로 사라진 건물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지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기술보다 '자유도'가 핵심인 '3D 리터러시'

테크캡슐에서 생산하는 3D 스캔은 사진이나 영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촬영자가 정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보는 이가 직접 시점과 경로를 결정하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 어떤 시스템이나 추정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가 핵심이다. 황 대표는 이 자유도가 진정 의미를 갖기 위해 데이터를 읽고 활용하는 감각인 '3D 공간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미래의 분석을 위해 보존한 샘플처럼, 3D 스캔 데이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이 테크캡슐이 정의하는 '캡슐'의 지향점이에요. 아무리 자유도가 높은 데이터라도 그걸 어떻게 쓸지 해석하고 요리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없으면 단순한 정보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는 기록도 훗날 기술이 더 발달했을 때 새로운 진실을 발화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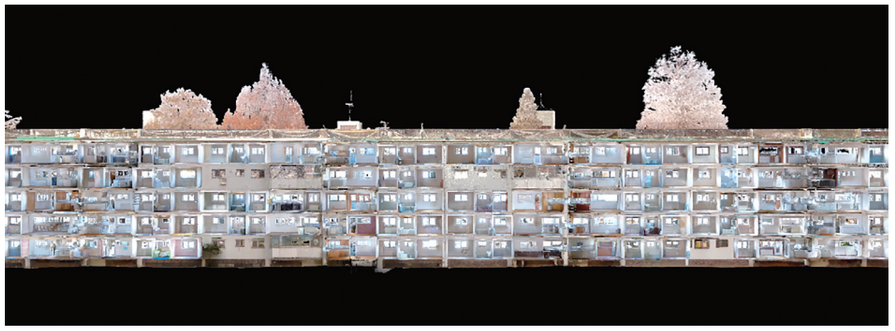
한편으로 테크캡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3D 디지털 공간 아카이브 워크숍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이런 비전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실천 방법이다. 단순히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공간 데이터를 각자의 이야기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3D 공간 리터러시의 대중화'를 위한 시도다. 시민들의 삶이 깃든 장소를 직접 기록하고 이를 새로운 창작의 재료로 삼는 일, 테크캡슐은 기술을 통해 누구나 기록의 주체가 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현실 경험을 공통의 자원으로 만드는 아카이브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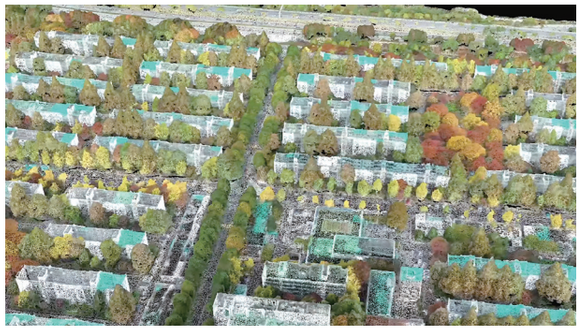
황지은 대표는 아카이브를 "현재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의 경험을 공동의 자원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호텔 '힐튼서울'의 데이터가 공공 자산으로 남게 된 것도 이러한 철학이 작용한 결과였다. 현재 황 대표가 몰두해하고 있는 과제는 방대한 3D 데이터를 비롯해, 회사 내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테크캡슐의 숙제인 동시에, 문서 중심의 기록을 넘어 시각 자료의 공공성을 확장하려는 서울기록원의 행보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실제로 서울기록원은 2023년 '서울 경관기록화' 관련 시청각 기록물 4,668건을 인수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추가 인수를 통해 디지털 기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가고 있다. 테크캡슐의 공간데이터 이관은 서울기록원의 수집·보존 방향을 구체화한 사례이며, 새로운 시민 기록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기술은 공간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을 공공의 자산으로 남긴 것은 결국 사람의 꾸준한 실천이었다. 테크캡슐의 비전과 실천이 기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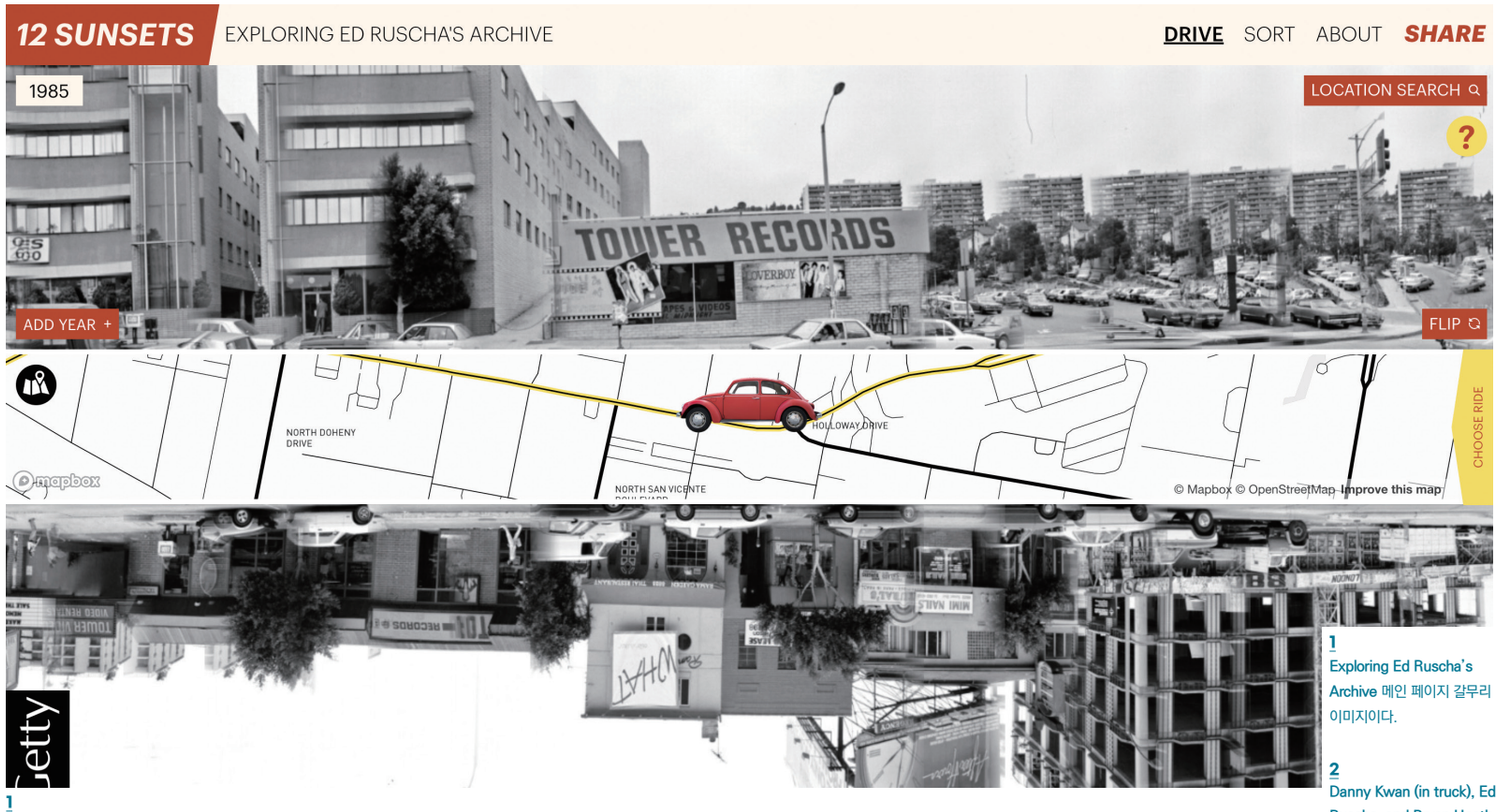


5



시공간의 레이어로 기록된 도시의 파노라마

이혜린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조교수



1

한 명의 예술가가 도시의 파노라마를 촬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방식이 만들어 낸 역사와 증거, 혹은 망각의 층위는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을까. 에드 루샤Ed Ruscha, 1937~의 답은 역설적이었다. 픽업트럭에 카메라를 싣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 LA의 거리를 달리며 도시의 모습을 기계적으로 담았다.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는 사진가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선택하지 않고, 멈추지 않은 채 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을 찍었다. 특별히 의미 있어 보이거나 눈에 띄게 아름다운 것을 일부러 고르지도 않았다. 그렇게 1966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연속된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단면들은 어느새 도시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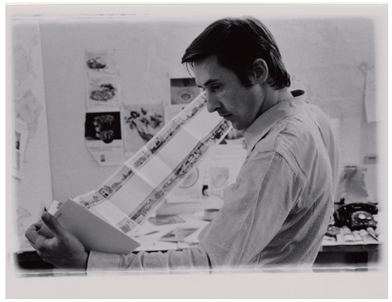
사라진 공간, 남은 사진

1971년 LA 선셋 스트립Sunset Strip 중심에 문을 연 타워 레코드Tower Records는 평범한 음반 가게가 아니었다. 당대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이 드나든 공간이자, 그들의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팬들이 기꺼이 줄을 서던 곳이었다. 테이프, CD, LP를 직접 고르던 그 공간은 물건을 사는 곳이자 동시대의 음악을 발견하는 기억의 장소였다. 할리우드와 연결된 음악 산업의 중심에서 타워 레코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다. 타워 레코드의 영향력은 미국에 그치지 않았다. 1995년 우리나라에도 서울 강남역에 1호점이 문을 열었고, 타워 레코드의 'No Music, No Life'라는 슬로건은 한

1
Exploring Ed Ruscha's Archive 메인 페이지 갈무리 이미지이다.



2
Danny Kwan (in truck), Ed Ruscha, and Bryan Heath in Ruscha's Datsun pickup truck, 1973
Photo by Paul Ruscha. Getty Research Insitute, Los Angeles (2012.M.1)
Creator(s): Paul Ruscha and Ed Ruscha and Danny Kwan and Bryan Heath @ Ed Rusha



3
Ed Ruscha unfolding his book "Every Building on the Sunset Strip", circa 1967-68, ca. 1967-1968
©Jerry McMillan
Creator(s): McMillan, Jerry and Ruscha, Ed

세대의 감성을 압축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매장을 운영했던 타워 레코드는 디지털 음악이 확산하고 복잡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선셋 스트립을 포함한 전국 매장을 2006년 12월부로 공식 폐점했다. 2022년에는 선셋 스트립에 있던 건물마저 철거되었다. 그 건물이 루샤의 카메라에 남아 등장한다. 전성기를 누리고 사라져간 타워 레코드의 전 과정이 같은 자리에서 기록되었다. 한 상업 공간의 탄생과 소멸이 곧 동시대 대중음악 문화의 생활사가 된 것이다.

에드 루샤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로, 팝아트와 개념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일상적인 언어와 도시 풍경을 소재로 삼았고, LA의 선셋 스트립을 통째로 촬영해 펼쳐 볼 수 있게 출간한 『Every Building on the Sunset Strip』(1966)은 현대 사진사의 주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픽업트럭과 카메라가 쌓은 도시

작가는 픽업트럭에 모터 구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LA의 주요 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달리며 거리 양쪽을 체계적으로 촬영하였다. 선셋대로의 경우 1965년부터 2007년까지 12번에 걸쳐 기록했다. 같은 거리를 다시 찍을 때마다 도시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고, 루샤의 카메라는 그 변화를 쌓아갔다. 같은 장소를 다시 찍는다는 것은 도시가 스스로의 변화를 기억하도록 돕는 행위였다. 그렇게 생산된 기록물은 35mm 필름 네거티브, 콘택트 시트, 확대 인화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사진뿐 아니라 촬영 날짜와 도로명, 사진을 찍은 방향, 카메라와 필름 등의 기술적 정보 등을 일관되게 기록한 수첩도 포함되어 있다.

수십 년간 주요 도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달리며 거리 양쪽을 체계적으로 포착해 도시 경관의 변화를 축적한 루샤의 접근법은 개별 이미지의 예술적 완성도보다 기록의 전체적인 연속성을 중시한 것으로, 전통적인 예술 창작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은 작가가 촬영 당시부터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루샤는 픽업트럭 위에서 카메라로 계속 촬영하다 필름이 다 떨어지면 새 릴로 교체해야 했다. 그때마다 그는 릴 번호를 적은 카드를 카메라 앞에 들고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마치 영화 촬영 현장에서 흔히 슬레이트로 불리는 클래퍼보드를 치는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새 필름이 시작되는지를 사진 안에 직접 표시한 것이다.

덕분에 수십만 장의 사진이 뒤섞이지 않고 순서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루샤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촬영했고, 그 결과 남은 기록이 50만 점에 이른다. 그렇게 한 예술가의 집요함은 역사가 되고,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의 흔적이 되었다.

시간을 달리는 아카이브

루샤의 작업은 2012년 한 연구소를 만나 또 다른 역사가 된다. 세계적인 미술사 연구기관인 '게티연구소Getty Research Institute'가 루샤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수집하면서다. 루샤의 사진은 작품으로써 의미가 크지만, 작가의 작업을 유추할 수 있는 아트 아카이브이자 50여 년간 축적된 도시 변화의 시각적 기록이기도 하다. 도시사, 건축사, 사회사, 문화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게티연구소는 이 아카이브를 적절한 보존 환경에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자 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록을 콘텐츠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2020년 공개된 〈12 Sunsets: Exploring Ed

4



5



6



정적인 차이는 시간축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에 있다. 이용자는 1965년부터 2007년까지 12개의 서로 다른 시점을 선택해 선셋대로를 직접 '운전하듯' 탐색할 수 있다. 수십 년의 변화가 한 화면에 펼쳐지고, 슬라이더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같은 자리의 1966년과 1985년의 풍경을 나란히 교차시켜 볼 수도 있다. 각각의 사진을 클릭하면 촬영 날짜, 위치, 필름 릴 번호 등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사진이 속한 루샤 아카이브의 전체 컬렉션으로 연결되어 기록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처럼 루샤의 사진들로 구축한 누리집은 변화한 도시를 직접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즉 〈12 Sunsets〉는 사진 작품을 감상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그 사진이 어떤 맥락에서 생산된 기록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카이브이다. 이 점이 일반적인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다. 전통적인 아카이브 이용 방식이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개별 이미지를 찾는 '검색search'이라면, 〈12 Sunsets〉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탐험하는 '탐색 Ruscha's Archive이하 〈12 Sunsets〉. https://12sunsets.getty.edu/〉이다. 50만 장이 넘는 이미지 중 7만 장 이상의 네거티브 필름을 디지털화했고, 각 사진에 정확한 GPS 좌표와 촬영 정보를 부여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사진 속 간판과 표지판에 담긴 텍스트를 자동으로 읽어내는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도 도입했다. 사진 속 텍스트뿐 아니라 '자동차', '광고', '나무', '랜드마크' 등의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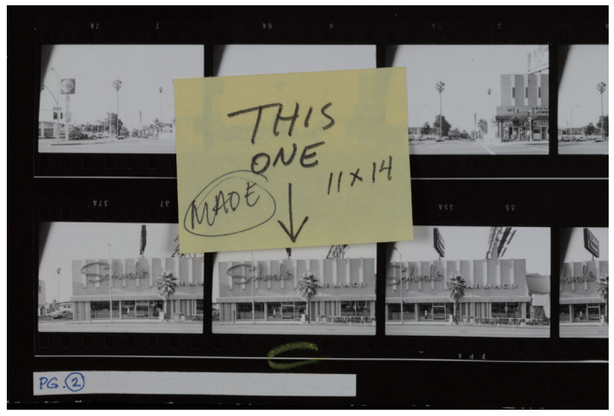
세계적 '게티연구소'와 협업으로 구현된 도시 기억

〈12 Sunsets〉 누리집에 접속하면 선셋대로 거리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이 파노라마는 하나의 사진이 아니다. 루샤가 픽업트럭에 몸을 싣고 달리며 연속으로 찍은 개별 사진들을 이어붙여 만든 것이다. 구글 스트리트뷰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지만 결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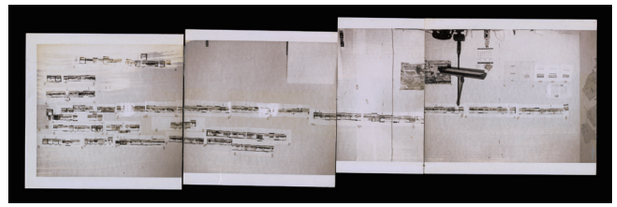
4
Edward Ruscha photographs of Sunset Boulevard: 1973 July 1 shooting session ©Ed Ruscha Creator(s): Ruscha, Edward

5
Edward Ruscha photographs of Sunset Boulevard: 1973 July 1 shooting session ©Ed Ruscha Creator(s): Ruscha, Ed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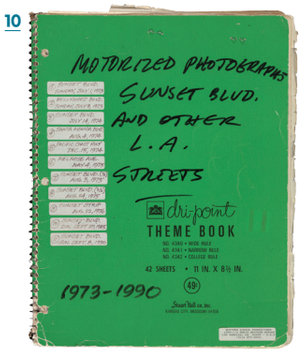
6
Edward Ruscha photographs of Sunset Boulevard: 1995 August 20 and 21 shooting sessions ©Ed Ruscha Creator(s): Ruscha, Edward

7
Ed Ruscha with motorized camera, 1975 Creator(s): Ruscha, P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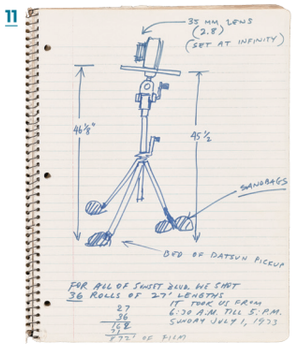
8
Edward Ruscha photographs of Sunset Boulevard and Hollywood Boulevard Creator(s): Ruscha, Edward



9



10



9
Photograph of mock-up displayed on studio wall, 1965 ©Ed Ruscha Creator(s): Ruscha, Edward

10
Front cover of project notebook, 1973 ©Ed Ruscha Creators: Ruscha, Edward

11
Notebook page, 1973 ©Edward Ruscha Creator(s): Ruscha, Edward (1937-)

* 전체 사진은 게티연구소 Getty Research Institute, Los Angeles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exploration' 경험을 제공한다. 이 경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사진사와 문화사, 도시사 연구자에게는 도시 변화를 분석하는 학술 도구가 되고, 일반 시민에게는 자신이 기억하는 거리의 과거 모습을 찾아보는 주체적 기억의 공간이 된다.

학술 도구이자 주체적 시민들의 기억 탐색 공간

실제로 프로젝트 공개 이후 시민들은 자신이 살았던 동네, 기억 속 건물을 플랫폼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경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었고, 개인의 기억이 역사적 기록과 만나며 공동체의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루샤의 아카이브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다시 읽히며 다시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 이것이 아카이브가 보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때 얻게 되는 가장 값진 성과가 아닐까.

도시는 한 번에 통째로 사라지지 않는다. 화재, 재개발, 노후화로 건물의 원형이 조금씩 바뀐다. 주유소가 사라진 자리에 쇼핑몰이, 오래된 극장이 철거된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그렇게 도시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상징적인 공간들이 점차 다른 모습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가령 1992년 LA 폭동은 도시 전역의 상업시설에 심대한 피해를 남겼다. 선셋대로 일대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루샤의 사진은 폭동 이후 도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자동차 중심의 도시 문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회의 팝아트적 감성, 기계적 복제 기술의 발달 등 20세기 후반 미국의 특성이 일관된 시각으로 포착한 루샤의 아카이브는 시각적 정보 제공을 넘어 20세기 후반 LA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루샤의 아카이브만큼 특정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생산된 사회적 산물임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도 드물다.

기록은 언제나 미래의 쓸모를 예측하지 못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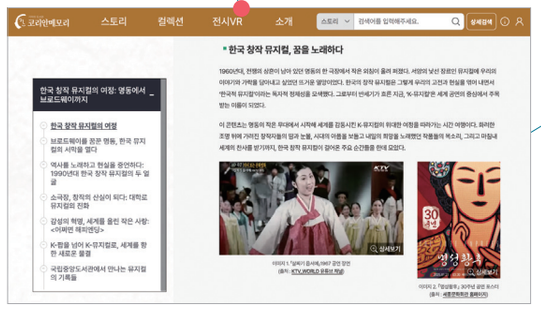
어떤 장소는 실제 건축물보다 사진과 신문 기사, 구술과 영화 속 이미지로 더 강하게 남는다. 건물은 허물어지지만, 기록과 기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기억이 잊히기 전에,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기록은 언제나 미래의 쓸모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다. 루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처음 픽업트럭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 사진들이 반세기 뒤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루샤는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의 변화를 기억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같은 거리를 반복해서 찍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기록이 쌓이는 동안 거리의 풍경은 시대의 증언이 되었고, 기록은 역사이자 증거가 되며, 때로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의 목록이 되었다. 그 목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시를 기억하고 있다. 루샤의 아카이브는 그렇게 도시의 시간을 담은 가장 긴 기록 중 하나로 우리 앞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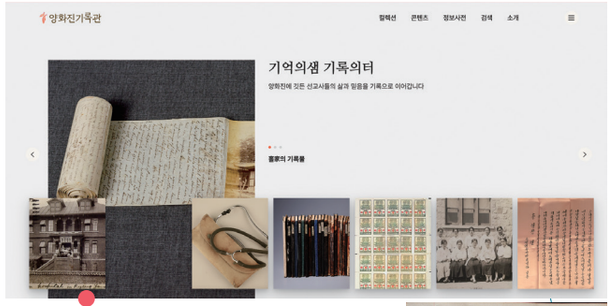
136년 전 선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김기철 | 시민기록가

아카이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머물지 않는다. 아카이브는 이제 조만간 사라져야할 운명에 놓인 것부터 차곡차곡 쟁여져온 시대의 감각과 기억 등에까지 가닿아 마침내 스쳐 지나갈 순간들을 붙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을 현재로 불러낸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점점 풍성해지는 이유이다. 최근 6개월 사이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디지털 아카이브를 소개한다.









#양화진기록관

32미터 편지를 통해 만나는 선교사의 마음

yanghwajinarchives.org

1890년 9월, 로제타 셔우드 홀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배에 올랐다. 하와이와 일본을 거쳐 40일을 항해한 끝에 조선에 닿았고, 그 여정을 편지로 남겼다. 94매 낱장이 이어진 두루마리 편지는 세로 길이만 31.8m. 지난 4월, 국가기록원이 전면 복원해 최초 공개한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양화진기록관에서 만날 수 있다.

2026년 3월 공개된 양화진기록관은 한국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를 연구·보존하기 위해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교회가 설립·운영하고 있다. 2012년 전택부 선생의 유품 기증을 계기로 출발했고, 이듬해 홀·웰본 선교사 가문의 기록이 더해졌다. 고달팠던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의 자필 서신, 일기, 사진, 교단 보고서 등 19세기 말의 기록과 함께 기꺼이 이국의 땅에 묻히길 택한 그들의 묘비 탁본 이미지까지, 디지털화된 기록이 7천여 점에 이른다. 특히 인물과 가문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계도, 그들의 활동을 시간 흐름으로 보여주는 타임라인까지 제공하고 있어 지금까지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기억의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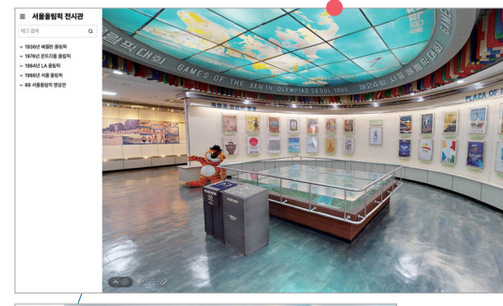
#잠실운동장 아카이브

사라지기 전에 잠실운동장 담기

stadium.seoul.go.kr/digital-archive

잠실종합운동장이 바뀐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과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금의 풍경은 곧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 역사적인 공간을 기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2026년 2월 모습을 드러낸 잠실운동장 아카이브는 5개 시설의 영상 기록으로 구성됐다. 올림픽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잠실야구장을 구분해 현재의 모습과 그간 켜켜이 쌓인 시간을 한 곳에 담았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프로야구와 농구의 역사는 물론 수십 년간의 공연 기록도 아울렀다. 서울올림픽을 재현한 가상 전시도 눈에 띈다. 3D 스캔으로 구현된 공간을 따라 이용자는 마우스로 직접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손기정 동상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존, BTS와 마이클 잭슨 등 뮤직 스타 존, 웅비상 같은 공공미술 작품도 3D로 복원됐다. 여기에 항공 VR을 더해 종합운동장 일대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한국문학비평아카이브

작품보다 오래가는 말들

munjang.or.kr/criticism

비평은 소설보다 빨리 사라진다. 작품은 책장에 남지만, 그것을 둘러싼 논쟁은 풍문이 되어 쉬이 흩어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6년 1월 선보인 한국문학비평아카이브는 그 휘발되는 언어들을 붙잡아두려는 시도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문예지에 발표된 비평 원고 300여 건, 이를 쓴 평론가 120여 명의 프로필을 한 곳에 모았다. 특징적인 것은 검색의 방식이다. 작품명이 아닌, 평론가가 직접 제시한 주제어로 비평을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소설 단위를 넘어, 동시대 한국 문학이 경유하는 질문과 그 비평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르코는 이를 "비평을 단발성 기록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한다. 한국 최초의 문학 비평 전문 공공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타이틀이 붙은 배경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뮤지컬 60년 디지털아카이브

뮤지컬 막이 내려도 기록은 남아야 한다

nl.go.kr/koreanmemory/

공연이 끝나면 무대는 사라진다. 때문에 뮤지컬은 기록하기 어려운 예술 중 하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26년 1월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에 공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여정: 명동에서 브로드웨이까지'는 그 아쉬움을 달래는 사라진 무대의 흔적을 모은 아카이브다. 1966년 초연된 예그린악단의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부터 2025년 토니상 6관왕작 〈어쩌면 해피엔딩〉까지, 한국 창작 뮤지컬 60년의 흐름을 7개 장으로 엮었다. 포스터, 대본, 팸플릿, 음원, 영상 등 흩어진 자료를 함께 연결해 각 시대의 공기와 뮤지컬이 어떻게 맞물려왔는지 드러낸다. 수입·번안에서 출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이 독자적 정체성을 갖추고 세계 무대로 확장되기까지 흐름이 한 눈에 펼쳐진다.

미어선0 틸지다 '상선' 내국 한관파관파 _ 내려숲 미어선0

음원, 예술 작품, 메뉴판, 도서관, 전쟁을 연결하니 아카이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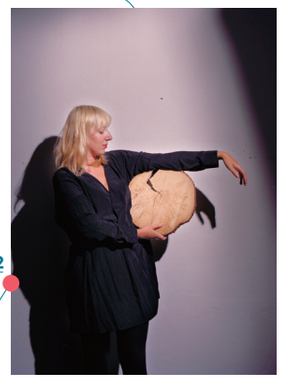
안대진 | 아카이브랩 대표

언젠가부터 아카이브는 실험실이다. 독점의 시대를 지나 지킴이 역할을 넘어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할지 묻고 답하며 일상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들이 단적인 증거다. 미의회도서관은 LP 음원으로 힙합을 만드는 놀이터를 열었고, 노르웨이에서는 100년 뒤 후손에게 보낼 비밀 원고를 숲속에 보관한다. 뉴욕의 사서들은 100년 전 메뉴판을 크라우드소싱 했고, 익명의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책을 모은 1페타바이트짜리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다. 전쟁이 터진 우크라이나에서는 무려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라질 위기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했다.

모두 기록을 둘러싼 관계와 상상력을 실험하고 있다. 다섯 개의 창을 통해 익숙한 기록관리 문법, 즉 수집-보존-제공의 선형 모델 바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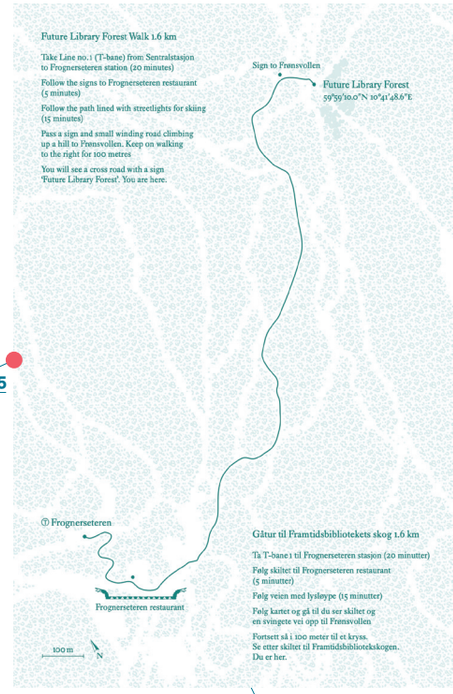
아카이브 수레2_ 영감과 감동의 해외 아카이브 실험들

#100년 뒤에야 읽을 수 있는 한강 작가 원고라니!



4

5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2014~2114
www.futurelibrary.no

1
미래도서관 내부의 침묵의 방 입구
suitcasemag.com/oslo-future-library-100-year-project/

2
프로젝트 기획자 케이티 패터슨
en.wikipedia.org/wiki/Ka

3
침묵의 방 내부. 100개의 유리판 중 12개 앞면에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있고 그 안에 원고가 보관되어 있다.
suitcasemag.com/oslo-future-library-100-year-project/

4
2018년 원고가 헌정된 한강 작가의 페이지
www.futurelibrary.no/#/years/2018

5
미래도서관 숲 가는 길. 프로그 네르세테렌 역에서 도보로 35분 거리에 있다.
www.futurelibrary.no/as

노르웨이 오슬로의 미래도서관Future Library. Framtidsbiblioteket은 전통적인 의미의 아카이브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깝다. 2014년 스코틀랜드 출신 예술가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2114년까지 매년 한 명의 작가에게 새로운 원고를 받아 봉인해 두었다가 100년 뒤에 공개하고 종이에 인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가는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오슬로 북쪽 노르드마르카 숲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는 100년 뒤 이 원고들을 인쇄할 종이로 쓰일 예정이다.

첫 기증자는 마거릿 애트우드2014였고, 데이비드 미첼2015, 시욘2016, 엘리프 샤팍2017을 거쳐 2018년에는 한국의 한강 작가가 'Dear Son, My Beloved' 원고를 기증했다. 2026년에는 작가 아미타브 고시가 12번째 원고를 전달할 예정이다.

원고가 보관되는 곳은 오슬로 데이크만 비요르비카 Deichman Bjørvika 도서관 최상층의 '침묵의 방Silent Room'이다. 미래도서관 숲에서 베어 낸 나무로 지은 이 공간의 작은 서랍 100개에는 작가 이름과 원고 제목만 새겨져 있다. 방문객은 책을 펼칠 수 없다. 그저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100년 뒤를 상상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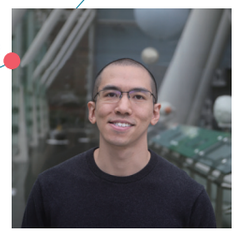
'읽을 수 없는 도서관'이라는 설정은 아카이브의 기본 전제를 정면으로 뒤흔든다.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누군가, 언젠가 그것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미래도서관의 작가들은 자신이 쓴 글을 생전에 누구에게도 읽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미래의 독자'를 상상하며 글을 쓴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역사 음원으로 힙합을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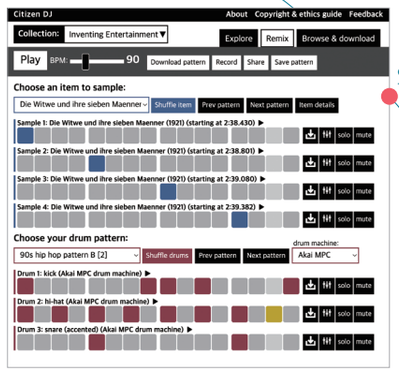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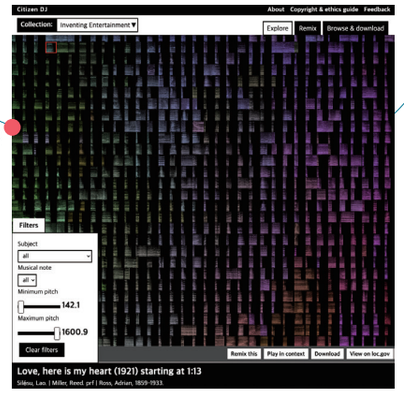


6

청취자를 창작자로 만드는
미의회도서관의
'시티즌 DJ'
2020~
citizen-dj.labs.loc.gov



9



8

6
프로젝트 창립자 브라이언 푸
blogs.loc.gov/ofthepeople/2023/01/connecting-communitiesdigital-initiative-introducing-brian-foo/

7
음악 듀오 더블 디 앤 스테인스키(좌)와 힙합 그룹 드 라 소울(우).
사진 제공: 미의회도서관 및 미카 배이사넨
citizen-dj.labs.loc.gov/retro/

8
Citizen DJ 음원 탐색 도구
citizen-dj.labs.loc.gov/loc-edison/explore/

9
Citizen DJ 리믹스 도구
citizen-dj.labs.loc.gov/loc-edison/remix/?i=00694084&s=158430&d=mpc&p=90hB2

미의회도서관LoC이 소장한 78rpm 음반대개 LP 등장 이전 시대 음반을 일컬음, 라디오 방송, 무성영화 시대의 사운드는 크레이트 디거에겐 금광이었다.크레이트 디깅Crate digging: 중고 음반 매장이나 벼룩시장 등에서 희귀하거나 오래된 바이널 레코드를 찾기 위해 음반 상자를 뒤지는 행위로, DJ나 프로듀서들이 샘플링할 음원을 찾는 힙합 문화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2020년 의회도서관 입주 작가였던 브라이언 푸Brian Foo는 누구나 웹 브라우저에서 이 아카이브를 샘플링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티즌 DJCitizen DJ' 앱을 공개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재즈, 블루스, 라디오 토크 등 음원들을 게임하듯이 고르고 비트 위에 얹으면 된다. 다운로드해 에이블톤이나 프루티 룹스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로 가공할 수도 있다. 모든 사운드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푸는 의회도서관의 미국저작권청과 함께 '디지털 샘플링의 저작권과 윤리 가이드'까지 만들었다. 1990년대 이후 샘플링 소송이 늘어나며 사실상 사라진 1980년대식 콜라주 힙합을 공공 컬렉션의 힘으로 되살리겠다는 발상이었다.

시티즌 DJ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은 접근성과 창작 사이의 연결을 아카이브가 직접 설계했다는 데 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 메타데이터를 읽는 방식이 아니라, 샘플링과 믹싱이라는 음악적 실천을 통해 과거의 기록에 접근하게 만든 것이다.

이 발상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베타 공개 직후 단 몇 주 만에 의회도서관과 한 번도 접점이 없던 아마추어 프로듀서, 영화 제작자, 교사, 학생들이 몰려들어 약 10만 건의 세션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아카이브가 더 이상 연구자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책은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

10
Anna's Blog에서는 '해적 아키비스트가 되는 법'이라는 글도 볼 수 있다.
100TB LTO-9 테잎을 든 인물이 인상적이다.
annas-archive.gl/blog/blog-how-to-become-a-piratearchivist.html

11
Anna's Archive 누리집
annas-archive.g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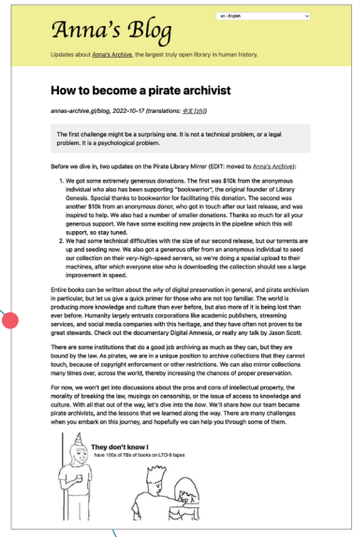
Anna's Archive는 공식적인 아카이브라기보다는, 제도권 밖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y'들을 통합 검색하는 거대한 검색엔진에 가깝다. 'Anna'라는 가명을 쓰는 누군가가 운영하는 Anna's Archive는 2022년 전 세계 최대 불법 전자책 사이트로 알려진 'Z-Library'가 미국 당국에 의해 폐쇄된 직후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Z-Library, Sci-Hub, Library Genesis 등 여러 그림자 도서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개방적인 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규모는 압도적이다. 2026년 4월 현재 약 6,400만 권의 책과 9,500만 편의 논문, 약 1.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색인하고 있다. 검색창 하나로 전 세계에서 유통·스캔된 수천만 권의 책, 논문, 잡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서버는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콘텐츠 주소 지정과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파일시스템/프로토콜로, 파일을 해시 기반 식별자(CID)로 저장·배포해 중앙서버 의존을 줄이고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터넷 곳곳에 있는 파일을 찾아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기반 분산 저장 구조 위에서 운영되며, 도메인이 차단될 때마다 그린란드(.gl), 영국령 버진아일랜드(.vg), 파키스탄(.pk) 등 차단이 덜지 않는 국가의 도메인으로 옮겨 가며 살아남는다. 이 원고를 쓸 때에도 .org 도메인은 차단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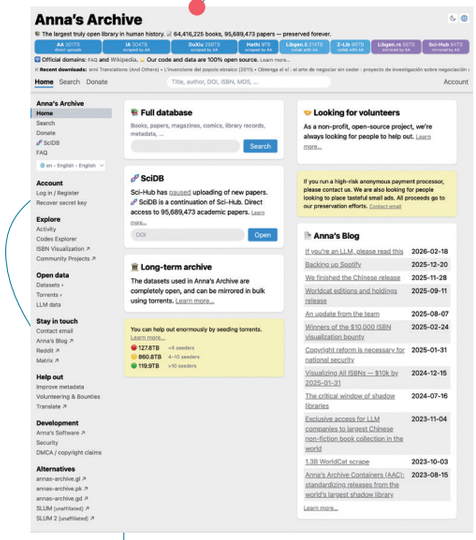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명백히 저작권법과 충돌한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이 차례로 자국 ISP에 도메인 차단 명령을 내렸고, 2026년 3월에는 미국출판사 연합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25년 2월에는 이들이 메타Meta에 LLM 학습용 데이터로 81TB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또 다른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리적 판단은 독자의 몫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모든 책이 모두에게 열려야한다'는 도서관 본연의 이상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시도가 차단과 부활을 반복하며 1.1페타바이트의 디지털 도서관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세상의 모든 책
아카이브 하는 그림자 도서관
'Anna's Archive'
2022~
annas-archive.org



10



11

#세계시민이 함께 구조하는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12
SUCHO의 밈 월
www.sucho.org/memes

13
홀로드니가 만든
SUCHO 포스터
gallery.sucho.org/items/show/1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을 온라인으로 구하자Saving Ukrainian Cultural Heritage Online'의 영문 첫 글자로 이뤄진 SUCHO는 이름 그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하게 꾸려진 디지털 구호 네트워크이다. 2022년 3월 1일, 미국 터프츠대와 스탠퍼드대, 오스트리아 아카데미 소속 3명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불과 몇 달 사이 전 세계 1,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온라인 작업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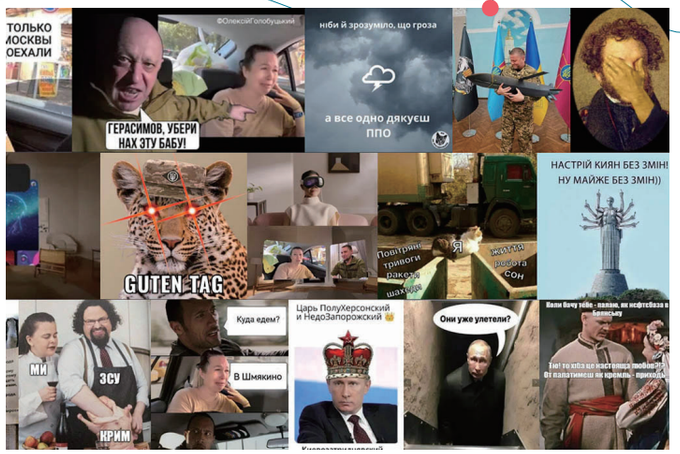
SUCHO의 핵심 과제는 우크라이나 안팎의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학교, 문화센터의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백업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쟁으로 서버가 파괴되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정치적 이유로 콘텐츠가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브라우저트릭스Browsertrix, 아카이브웹페이지 ArchiveWeb.page, 인터넷 아카이브의 웨이백 머신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크롤링하고, 데이터를 여러 지역에 분산 저장했다. 2022년 여름 무렵까지 SUCHO는 5,000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50TB에 달하는 데이터를 백업했다.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온라인 긴급 구조대 'SUCHO'
2022~
www.sucho.org

2년이 지나며 SUCHO는 2단계로 진입했다. 슬로건은 '큐레이트, 도네이트, 에듀케이트Curate, Donate, Educate'로 바뀌었다. 봉사자들은 백업한 자료를 큐레이션해 전시 갤러리를 만들고, 우크라이나 문화기관에 스캐너와 외장하드, 정전 대비용 보조 배터리를 보냈다. 유럽 헤리티지 어워드Europa Heritage(혹은 Nostra) Awards는 2024년 SUCHO를 '문화유산 챔피언'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2단계 결과물 중 눈에 띄는 작업은 'SUCHO 밈 월Meme Wall'이다. 밈 월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생산된 '우크라이나 전쟁밈'을 새로운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보고, 이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수집한 온라인 갤러리다. 갤러리는 단순한 유머 모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회가 전쟁을 견디며 만들어낸 자조와 저항, 공포와 일상의 감정을 기록하는 일종의 감정 아카이브로 기획되었다. SUCHO는 이 컬렉션을 미래의 역사 연구, 우크라이나어, 사회과목 수업, 컴퓨터 비전 연구 등 다양한 교육·연구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리소스로 설계하고 있다.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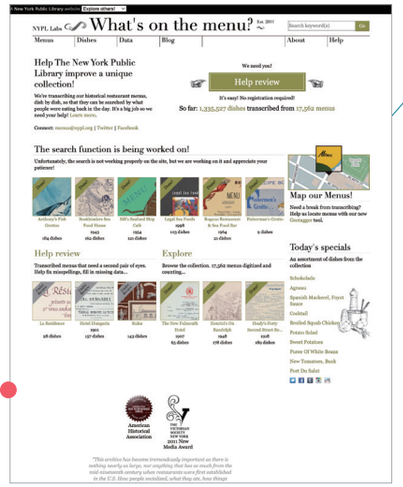
#메뉴판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

뉴욕 공공도서관의 메뉴판 크라우드소싱 'What's on the Menu?'
2011~2025
www.nypl.org/research/support/whats-on-the-menu

14



15



뉴욕 공공도서관NYPL의 희귀본실에는 오래된 레스토랑과 호텔, 선박의 메뉴판 4만5,000장이 보관되어 있다. 'What's on the Menu?' 프로젝트는 이 수만 장의 메뉴판을 디지털화하고,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메뉴를 한 줄 한 줄 타이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크라우드소싱 실험이다.

2011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초기 9천여 개 메뉴를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전사해낼 만큼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는 1만7,500개 이상의 메뉴에서 133만 개가 넘는 음식 항목이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다. 이용자는 특정 연도나 식당 이름, 굴이나 소고기 같은 재료로 검색해 '어느 시대에 어떤 음식을, 얼마에 팔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해 뉴욕의 외식 문화나 물가, 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시민들은 옛날 메뉴를 보며 가족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사라진 레스토랑을 쫓아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아쉽게도 2025년 1월, NYPL은 노후 서버와 사이버보안 문제로 이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상적인 점은 사이트는 닫혔지만 데이터는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전체 데이터세트는 캐글Kaggle, 클릭하우스ClickHouse 같은 외부 플랫폼에 미러링되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단기간 용역이나 전문가 검증이 아니라, 불완전한 스캔 이미지와 시민 자원봉사의 힘으로 천천히 데이터를 정제했다는 것이다. NYPL은 오류 가능성을 감수하며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냈다.

다섯 개의 아카이브 실험이 말하는 것

다섯 사례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형식과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을 기록으로 초대하는가,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아카이브는 얼마나 먼 미래를 상상해야 하는가!

미의회도서관은 청취자를 창작자로 바꿨고, 미래도서관은 100년 뒤의 누군가를 독자로 설정했다. NYPL은 메타데이터 입력을 시민에게 맡겼고, 사이트가 닫힌 뒤에도 데이터를 살아남게 했다. Anna's Archive는 합법성의 경계 너머 '모든 사람의 도서관'을 추구하고 있다. SUCHO는 전 세계 1,500명의 시민이 한 나라의 디지털 문화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기억 기관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 우리는 시민을 검색 이용자로만 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컬렉션은 100년 뒤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닿을 것인가? 사이트가 닫혀도 데이터는 살아남을 구조인가? 이 질문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만들어갈 기록문화를 상상하게 하는 발판이 되길.

14
1906년에 만들어진 큐나드 증기선 회사의 메뉴판. 메뉴 상단에 RMS 삭소니아 호 그림이 보이는데, 엽서로도 사용 가능하다.
digitalcollections.nypl.org/items/e197c0b0-c53f-012f-fc8c-58d385a7bc34?canvasIndex=0

15
What's on the menu? 누리집
web.archive.org/web/20240822052202/https://menus.nypl.or

이쑤시개와 첨단 CT 사이 50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1976년, 서울 광화문 구 조선총독부 건물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한 작업대 위에는 깨진 토기 조각과 부러진 금동불상 파편이 놓여 있었다. 당시 연구자는 이쑤시개 끝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 유물 틈새에 낀 오래된 흙먼지와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정교한 측정 기계도, 성분을 분석할 첨단 장비도 없이 시간과 끈기, 그리고 부서진 역사의 파편을 다시 온전하게 이어 붙이겠다는 의지가 자산이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반세기가 흐른 2025년 10월 28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북동쪽 부지에는 연면적 9,196제곱미터, 3층 규모의 '보존과학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유물 내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최첨단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장비 3대를 갖춘 '방사선 조사실', 유물 형태를 3차원 입체로 읽고 분석하는 '3D 형상분석실', 전국 각지의 유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진단실' 등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다. 이쑤시개에서 첨단 CT와 인공지능이하 AI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이 극적인 기술적, 인식적 거리만큼이 국립중앙박물관, 아니 대한민국 보존과학이 걸어온 성장과 헌신의 궤적이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고요하게 유물과 호흡하는 보존과학! 국보와 보물들이 관람객 앞에 고색창연한 역사의 숨결을 드러내기까지,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유물의 재질을 진단하고, 부식의 시계를 늦추며, 과거의 원형 정보를 한 조각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를 찾았다.





1

나가며 클릭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보존처리 과정, 보존과학센터 전경 영상이 보입니다

문화유산 종합병원이 되다

"유물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손상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람과 다르지 않아 유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역할이 유물의 노화 속도를 줄이고, 정도가 심하면 최대한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한창 유행했던 '저속 노화'라는 건강법과 비슷하겠네요. 대상이 사람과 문화유산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보존과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병원입니다. 문화재가 저희한테 오면 CT를 찍고, 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재질이 무엇인지, 어디가 부러지고 손상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사해 정확히 유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내과적 접근이 효과적일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지 등 유물의 재질과 상태, 특성을 기반으로 보존과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과정과 흡사하죠."

1992년 합류, 2026년 6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2년째 일하고 있는 천주현 보존과학부장의 말이다.

사실 대한민국 보존과학의 역사는 학술적 호기심이 아닌, 긴박했던 유적 발굴 현장에서 태동했다. 1971년 발굴된 공주 무령왕릉, 1973년 모습을 드러낸 경주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 1970년대 초 한반도를 뒤흔든 대형 유적 발굴은 한국 고고학의 축복이자 보존과학의 전환점이었다. 수천 년 땅속 환경에 맞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던 금속과 목재 유물들은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무서운 속도로 부식되고 뒤틀리기 시작했다. 자연의 시간은 보존과학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상태가 급변하는 유물들을 선제적으로 붙잡기 위한 신속한 사후 보존처리가 절실해졌다. 당시 절박함과 사명감이 모여 1976년, 마침내 박물관 내에 '보존기술실'이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성장의 길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박물관이 역사적인 '용산 시대'를 연 2005년 이후 전문 인력은 꾸준히 충원되고 재질별 보존처리 기법도 나날이 세분화, 전문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공간적 여유와 대형 분석 설비의 도입은 예산과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1
경주 석리총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측판편과 디지털
원형 복원 재현품 모습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2
보존과학 50주년을
맞아 2025년 신축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전경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2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당장 파손된 유물을 붙이고 떼는 '사후 보존처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도 존재했다. 그리고 2025년 600억 원 안팎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독자적인 보존과학센터 건립이 현실화된 바탕은 이러한 내부 문제의식과 구조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박물관이 어떤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가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뤄진 고민한 총합이었다.

유물 사후 처리에서 AI·디지털 시대를 열기까지

지난 2025년 사상 처음으로 관람객 600만 명 시대를 열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과 이탈리아 바티칸박물관에 이어 세계 3위 박물관으로 도약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 과정과 오롯이 함께 해온 천 부장은 우리 50년 보존과학의 역사를 크게 3단계 패러다임 전환으로 설명한다.

"1단계는 사후 보존처리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유물의 수리와 복원이 중심이었어요. 유물이 파손되거나 붕괴 위험에 처했을 때 현장에 투입돼 접착하고 물리적으로 형태를 복원하는 '치료'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보존 기술을 흡수하는 데 주력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1990년대 중반부터 대략 2020년까지를 아울러 '예방보존과 과학적 조사의 시대'로 압축할 수 있는 2단계 패러다임은 김영삼 정부 때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 계획을 실행한 전환기였다. 전문 인력이 대거 충원되면서 부서진 뒤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을 제어하는 '예방 보존'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자외선과 적외선, 엑스선 등 다양한 빛을 활용한 과학적 성분 분석과 비파괴 조사가 본격화돼 유물의 제작 기법과 내부 상태를 객관적 데이터로 읽어내고, 그 경험을 축적한 때였다.

2020년부터 현재에도 진행 중인 3단계는 '보존과학센터' 건립과 함께 'AI와 디지털 보존과학의 시대'로 도도한 항해가 기획, 추진되고 있는 시기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박물관이 직접 손대고 조사해 온 국보급 문화재의 과학적 데이터는 무려 4만 점에 달한다. 보존과학센터는 이 방대한 기록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가상 복원, 원격 진단,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현실화하고 있다.



3



4

100년 만에 깨어난 '금동신발' 복원 프로젝트

디지털 보존과학의 진면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924년 경주 식리총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복원 프로젝트다. 발굴 당시 금동신발은 심각하게 파편화돼 바닥판 구조 외 전체적인 형태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그동안 관람객들은 그저 금속 조각과 바닥 평면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신발이었다는 사실을 상상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존과학부 연구진이 2022년부터 3년간 정밀 3D 스캔, 대형 CT 촬영, 고배율 현미경 분석을 총동원하는 융합 연구에 착수했다. 사방으로 흩어져 별도로 보관돼 오던 수십 개의 미세한 측판 잔편들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 통째로 업로드한 뒤, '디지털 정합 Matching 기술'을 통해 퍼즐을 맞추듯 가상으로 결합해 나갔다. 컴퓨터 상에서 형태의 모순을 교정하고 유물의 두께와 곡률을 계산해 접합한 결과, 마침내 100년 만에 완벽한 형태의 금동신발 원형을 디지털로 재현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고대 장인들이 유물을 만들 때 사용한 주조 성형 기법과 신발 고유의 U자형 고리 구조 등 숨겨진 제작 메커니즘까지 새롭게 규명, 학계에 최초로 공개되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완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물리적 재현품까지 제작됐고, 현재 보존과학센터는 이 가상 원형을 나침반 삼아 실제 원본 유물을 물리적으로 복원하는 최종 단계를 밟고 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수천 년 전 고대 장인의 호흡과 현대 보존과학자의 안목을 이어주는 완벽한 매개체가 된 것이다.

3
1980년대 보존처리실 모습이다.

4
1990년대 보존기술실 모습이다.

5
2025년 현재 보존과학센터 내 서화실 모습이다.

6
2025년 현재 보존과학센터 내 금속실 모습이다.



5



6

재질별 맞춤형 손길과 첨단 '장비발'의 융합

보존과학센터 내부 구조는 보존과학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고도로 세분화된 종합과학인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센터 내 보존처리실은 서화실, 금속실, 목조실, 석조실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종이와 비단에 먹과 천연안료로 그려진 전통 회화를 다루는 손길과, 청동이나 철제 유물의 부식과 화합물 반응을 제어하는 손길은 전혀 다른 화학적 메커니즘과 예술적, 역사적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넓어진 서화실은 길이가 10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불화괘불까지 안전하게 펼쳐놓고 종이 보강과 접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었다.

하지만 첨단 장비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화려한 과학의 시대 속에서도 보존과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과 '철학적 원칙'이다. 엑스선 영상과 CT 단면도가 아무리 정밀한 시각 자료를 쏟아내도, 그것이 유물의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아니면 후대에 발생한 치명적인 손상인지, 나아가 어디까지 인위적인 손을 대고 어디서 멈추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학예연구사의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이다.

세 걸음 뒤에서는 표나지 않게…
유물을 붙잡는 중재자의 자세와 보존과학의 원칙

동양 회화 보존처리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천 부장은 보존과학의 본질을 한 단어로 '모방'이라 정의한다.

"많은 이들이 보존과학을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거나 극적인 전후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실제 가장 훌륭한 보존과학은 유물이 지닌 과거의 성격과 재료, 기법을 그대로 모방해 현재의 상태를 왜곡 없이 미래로 전달하는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철학은 보존과학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오랜 원칙과 맞닿아 있다.

"보존처리를 마친 유물은 세 걸음 정도 떨어져서 보면 전혀 표가 나지 않아야 해요. 이를 뒤집으면 세 걸음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어디를 보강했는지 전문가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물의 상처를 완벽하게 감추어 새것처럼 만드는 것은 보존과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세월이 흘러 또 다른 후대의 보존과학자가 더 뛰어난 기술과 장비를 들고 이 유물을 다시 다루게 될 때, 어디까지가 조상들이 남긴 원래의 진짜 원형이고 어디부터가 2026년의 보존과학자들이 보강한 부분인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가역성reversibility'을 열어두어야 하는 이유와 연결된다. 과거를 함부로 새로 쓰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무너지는 유물을 붙잡는 중재자의 자세,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보존과학자들의 엄격한 '예의'인 셈이다.

보존과학 미래 50년 향해 열린 '개방형 문화유산 플랫폼'

과거 박물관의 보존실은 유물의 도난 예방과 보안을 이유로 두꺼운 철문 뒤에 숨겨진 철저한 음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새로 개관한 보존과학센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방형 문화유산 플랫폼'으로 선언했다.

센터는 그 일환으로 시민과 접점 공간을 마련했다. 실제 연구원들이 상주하며 유물을 레이저로 스캔하고 디지털화하는 '3D 형상 복원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유리창 너머로 실제 보존처리 공정을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2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보존과학센터는 또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등 소속 국립 박물관에 근무하는 70여 명의 보존과학 인력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존 인프라가 취약한 전국의 공·사립 박물관 및 사찰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원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스마트 원격진단실은 여기에 해외에 나가 있는 25만여 점의 한국 문화재들이 현지 보존처리자들의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중국풍이나 일본풍으로 왜곡돼 수리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박물관의 한국실 소장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글로벌 중심지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정리해 학술지를 발간하고, 대상별 보존과학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천 부장은 이 때문에 보존과학센터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50년 전 낡은 책상 위에서 이쑤시개로 토기 파편의 흙을 걷어내던 초기 연구자의 조심스러운 손길과 2026년 보존과학센터 내부 CT실에서 기마인물형 토기의 내부 3D 단면을 가늠하는 학예연구사의 날카로운 눈이 사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보존과학자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바람은 박물관에 오셔서 우리의 도도한 역사를 증거하는 유물을 마음껏 즐겨주시는 겁니다. 2016년 저희 보존과학부가 중심이 돼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를 주제로 한 전시를 열었어요. 그때 엄청난 관람객이 찾아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존재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유물과 함께 역사의 시간을 살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유물 속에 깃든 역사의 시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기술은 반세기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화했으나 그 진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는 비싼 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이 아니라 50년 동안 이어져 온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다음 50년, 미래 세대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다리이다.



7



8



9

7
고구려 개마총 고분 벽화편

8
고구려 개마총 고분 벽화편 초분광(파장 1254, 1654, 2145㎚) 조사

9
개마총 고분 벽화편 재현품

장비도감

나노 CT, 600kV 고에너지 CT, 450kV 원통형 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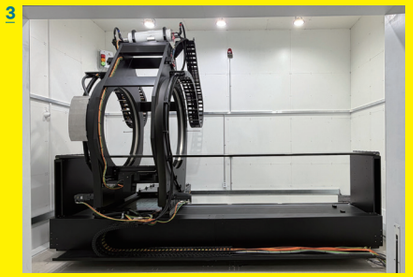
세계적 수준의 보존과학 첨단 장비 갖춰



1



2



3

1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600kV CT'는 유물 내부 축이 움직이며 종방향으로 스캔한다.

2
'나노 CT'을 갖춘 공간에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넘어서는 초고해상도 투시 시스템으로 아주 작은 유리구슬, 미세 칠기, 곤충 화석, 종이 뭉치 등 초소형 유물을 분석한다.

3
원통형의 450kV CT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에만 있는 장비이다.

비파괴 조사실과 분석실은 보존과학센터가 자랑하는 '장비의 요람'이다. 문화유산 보존의 대원칙은 유물을 자르거나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엑스선 투과 조사를 통해 안료층의 미세한 두께 차이를 읽어내 조선 후기 초상화 뒤편에 숨겨진 붓질의 흔적과 덧칠된 원래의 밑그림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존과학센터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바로 '3대의 CT(컴퓨터단층촬영) 라인업'이다. 작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3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들은 유물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동된다.

CT 장비를 운영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국내에서 자격을 갖춘 곳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 정도 불과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3대의 CT 장비를 활용해 국보 '경주 기마인물형 토기'의 내부 구조가 비어 있는 주전자 형태이며, 어떻게 액체를 따르도록 설계되었는지 입체적으로 규명해 냈다. 이러한 과학적 성과는 관람객이 직접 전시실 스크린을 돌려가며 토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이어져, 보존과학이 대중적 관람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장비 명칭	주요 특징 및 메커니즘	주 활용 유물 영역
나노 CT (Nano-CT)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넘어서는 초고해상도 투시 시스템	발굴 유적에서 출토된 아주 작은 유리구슬, 미세 칠기, 곤충 화석, 종이 뭉치 등 초소형 유물
600kV 고에너지 CT	높은 킬로볼트(kV) 소스를 활용해 유물 내부 축이 움직이며 종방향으로 스캔하는 장비	두꺼운 청동기, 철제 무기, 조각상 등 밀도가 높아 엑스선 투과가 어려운 대형 금속 유물
450kV 원통형 CT	의료용 CT처럼 유물은 고정된 채 원통형 테이블 위에서 엑스선 소스 자체가 회전하며 촬영하는 최신 장비	길고 거대한 대형 목재 유물, 파손 위험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는 대형 토기류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1

도시의 성장은 길의 확장, 혈관처럼 도시 곳곳을 잇는 교통망의 발전과 비례한다. 그 위에 펄떡이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새벽을 깨우는 버스의 엔진 소리, 시민들의 발걸음과 포개지는 지하철 진입 소리, 밤공기를 가르는 택시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흩어져버리는 순간이기에 오히려 감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 이동의 순간들을 붙잡아 드라마틱한 서사로 엮어낸 전시가 있다. 현재 서울기록원에서 열리고 있는 상설 전시 〈어느 도시의 탑승록〉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나 다름 없던 서울에 다시 길을 내던 1950~1960년대부터 지하철이 혁신을 거듭하며 도시의 뼈대를 완성해 온 1980년대까지, 120여 건의 공공 기록물과 함께 지하철 1호선 건설에 참여했던 한 설계자의 기증 자료, 여기에 시민의 기억까지 얹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어떻게 교통망을 핏줄 삼아 성장해 왔는지를 시청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손으로 그린 지하철 설계도, 상인의 간절한 진정서…

전시는 총 3부로 나뉜다. 1부 〈평면에 그린 도시〉는 버스와 택시, 고가도로 등 지상 교통망이 형성되던 시절을 다루고, 2부 〈입체도시의 시작〉은 지하철 개통을 중심으로 서울이 수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3부 〈겹겹이 쌓인 도시〉에서는 이동수단에 대한 시민의 오밀조밀한 기억과 목소리가 기록과 함께 놓였다.

하나하나가 의미있는 전시 기록인데, 특히 주목받는 기록은 18미터에 달하는 지하철 1호선 설계 도면이다.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물 중 가장 긴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국내에 지하철 건설 경험이 전무했던 시절 단 6명으로 출발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밤낮없이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고화질 영인본이 처음으로 제작되었는데, 정밀한 설계도를 일일이 손으로 그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자 대중교통의 혁신이었던 지하철은 허가를 위해 작성된 각종 연구서, 허가서, 단면도, 평면도 등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숭례문, 동대문 구간 허가 문서도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는 기록이다. 당시 1호선 공사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난제 중 하나가 문화유산 근처를 통과하는 구간이었다. 문화재관리위원회의 반대로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에 대한 연구가 치열했다.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최선의 답을 찾으려 했던 과정 자체가 한국 토목 공법의 발전을 앞당긴 당시의 여러 고민을 기록으로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수업 종사자 결의대회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합승택시, 모범택시 복장 규정, 서울기록원이 수집한 버스 회수권이나 토큰 등 대중교통으로 파생된 기록은 물론 '존경하는 ○○○ 시장님'으로 시작하는 교통 불편 민원 편지 등 '시민기록'까지, 입체도시 서울의 교통 발전사를 압축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보는' 것과 '읽는' 것 거리 좁히는 해제 활용하길~

공간의 크기에 비해 전시 기록물이 다채롭고, 수집물과 영상까지 더해진 공감각적인 전시라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좀 더 '재미있게' 누릴 수는 없을까? 이번 전시를 준비한 서울기록원 최혜주 학예연구사에게 살짝 팁을 물었다.

"전시실 입구에 인트로 영상이 있어요. 격변의 시기를 살아낸 한 사람의 생애와 함께 흐른 서울의 풍경을 담았는데, 전시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로쓰기 한문이나 행정 용어가 빽빽한 공공기록물의 경우 '해제'를 읽어보시라 추천 드립니다. 해제가 문서를 '보는' 것과 '읽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거든요. 또 버스와 택시 등을 주제로 한 4종의 엽서를 전시장에 비치했어요. 엽서 속 이미지가 어느 기록에서 나온 건지 산책하듯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방명록 형태의 '탑승록' 코너까지 기록해보면 전시를 완성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기록원 상설 전시
「어느 도시의 탑승록」

기간 ~ 2028년 8월 31일
장소 서울기록원 2층 제1전시실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7:00
*휴관: 매주 월,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이용요금 무료
문의 02-350-5600



4



2



3

1 〈어느 도시의 탑승록〉 전시장은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2 전시장에는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물로 제작한 엽서 4종이 비치돼 있다.

3 회수권은 이번 전시를 위해 수집했다.

4 서울기록원 상설 전시 〈어느 도시의 탑승록〉 전경

'입체도시 서울'의 대중교통 변천사 담아낸 〈어느 도시의 탑승록〉

맛이 기억되는 한 장소는 살아 있다

배은희 | 빨간집 대표

"구포국수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지열, 두 번째는 햇볕, 세 번째는 낙동강 바람입니다."
2024년 5월, 5대째 구포 토박이로 살아왔고 지역 문화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도희 선생이 설명하는 구포국수의 특징은 명확했다. 구포국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처음 대면한 선생의 말은 기록하는 자세와도 닿아 있었다. 땅과 햇볕과 바람이 말하고 가리키는 것을 챙기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챙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니 그 일에 참여하는 과정은 안타깝고 쓰라리면서도 명치 근처가 자주 울렁거리는 일이었다. 이 글은 서민의 곁에서 긴 시간을 함께 해온 국수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한 지역 기록가의 후기이다.



1



2

구포국수의 3대 요소, 지열과 햇볕과 낙동강 바람

이제는 서울에서도 어렵지 않게 간판을 만날 만큼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브랜드 '구포국수'의 역사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2024년 개관한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지역의 생활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학술총서를 기획한 덕분이었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유·무형의 유산을 매년 선정하는 '부산미래유산'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구포국수는 2022년에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만큼 구포국수는 부산 시민들의 삶이 담겨 있는 동시에 지역성이 드러나는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역할을 나누었고, 필자는 동료와 구포국수 관련 인물들의 구술 기록을 맡았다. 그 결과물이 2025년 12월 발간된 『구포와 밀의 만남: 구포국수』이다.

'구포국수와 구포시장'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국수의 명칭에 포함된 지명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살폈고, 구포시장의 형성과 변화를 알아보았다. 또 문학 작품과 사료에 등장하는 구포국수를 찾았고, 국수를 팔던 구포 상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복원한 레시피와 함께 '부산 국수 문화사'라는 칼럼을 실었다. 2부는 구포국수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상인과 토박이, 국수의 명성을 다시 이으려고 노력했던 공직자 등 7명의 구술을 실었다.

서민과 함께 한 흥망성쇠의 길

조사 과정은 구포국수가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향토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외지인에게는 낯설겠지만 사실 구포는 태백산맥을 원류로,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인 낙동강 하류 지점에 자리한 지리적 특성으로 조선시대부터 수로를 통한 물류 거점이었고, 일본군의 내륙 진입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던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에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구포역이 생기고, 서부경남을 잇는 구포다리가 준공된 뒤부터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5일장인 구포시장 발달과 일제강점기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인 구포은행 설립 등 상권의 발달과 밀접하게 맞물렸다. 자연스레 국수의 원료가 되는 밀이 들어오고, 제분·제면업이 발달하기에 용이했다. 게다가 인근 대리천의 잦은 범람 때문에 쌓은 제방으로 인해 습기가 머무는 땅인 동시에 해가 잘들어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국수를 말리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여기에 기수역인 낙동강 하구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은 짭쪼롬한 구포국수만의 맛을 만들어냈다.

본격적으로 국수 공장이 성업을 이룬 것은 1950년대 '원조' 물품으로 밀가루가 부산항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다. 1956년 제분 업체인 남선곡산이 설립됐고, 영남제분회사가 뒤를 이었다. 오래지 않아 구포시장 쪽에서 국수를 널어 말리는 풍경은 일상이 되었다. 특히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불면 양이 늘어나는 국수는 서민들에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는 고마운 한 끼였다. 딱히 유통이랄 게 없던 소규모 공장들의 판로는 직접 국수를 받아 부산 곳곳 시장에 납품하는 여성들이 담당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이기도 했다. 당시 대신동과 같은 부유한 동네가 22, 24반의 얇은 면을 선호했다면, 구포대교 건너편 농사꾼들은 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18반 두꺼운 면을 찾았다. 새참으로 나가는 국수가 불지 않도록 면과 육수를 따로 담아서 먹기 전에 면에 육수를 부어먹는 독특한 방식은 지금까지도 김해 대동 출신 '국수 맛집'들이 이어가고 있다.

한때 50여 개까지 늘어난 구포국수 공장은 상인들 간 상표권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너도나도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시외로 이전해 현재 구포에는 단 1개의 공장이 남아 있다. 외려 규모가 있는 '구포국수 공장'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명맥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진 곳도 있다.

기록은 지역이 오래 품어온 진짜 맛을 기억하는 일

이도희 선생이 말한 구포국수의 3대 요소는 몸의 감각으로 새겨져 국수의 염분과 건조시간 등을 결정지어 왔다. 정확한 수치로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의 기록화 작업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다. 구포국수를 기록하는 일은 지역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는 향토음식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는 일이었다. 구술자를 찾는 일부터 지역사를 꿰고 있는 역할을 자임한 지역 시민기록활동가들 덕분에 가능했음은 물론이다. 시민들의 마음을 뜨끈하게 데워 온 구포국수가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는 매개가 되기를, 타지 시민과 연구자들에게는 지역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의 가장 소박한 얼굴을 들여다보는 일, 맛이 기억되는 한 장소는 살아있을 것임을 믿는다.

1
부산근현대역사관이 펴낸 학술총서 『구포와 밀의 만남: 구포국수』 표지

2
구포국수를 기록하는 일은 구술자를 찾는 일부터 지역사를 꿰고 있는 역할을 자임한 지역 시민기록활동가들 덕분에 가능했다.

3
구포국수는 지열과 햇볕, 낙동강 바람의 총합이었다.

전체 사진 제공: 전상규, 부산근현대역사관

3



“우리 시민은 별걸 다 기록한다니까!”

서울기록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누리집과 SNS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걸 다 기록하는 사람들’ 이벤트를 진행했다. 27년 동안 매 끼니 메뉴를 기록해온 사연부터 데이트 기록, 편지와 일기, 영화 카드와 레시피까지 진짜 시민들은 별걸 다 기록하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우수 참여 사례를 소개한다.

일상에서 기록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 희귀하거나 엉뚱한 것을 수집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오래된 일기나 가계부, 편지도 좋아요. 서울기록원이 ‘기록의 날’을 맞아 ‘별걸 다 기록’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시민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꼭꼭 눌러담아 기록해온 이야기를 자랑해 주세요~!



식단 기록. 1999년부터 내가 먹은 것을 기록 중. 엑셀에 아침·점심·저녁 시간대 먹은 것을 적고, 포만감을 바탕색깔로 표시(빨간색=과식, 초록색=보통, 노란색=소식). 처음에는 음식과 식사 장소만 적다가 2013년부터는 함께 먹은 사람까지 기록하고 있음.

유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가계부부터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그때의 영수증까지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타임머신 같달까요. 때때로 꺼내어 들여다보면 설렘 가득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초심을 되새길 수 있어 참 소중한 기록들이에요. 기록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자 마음을 비추는 창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희귀한 수집물 연도별 동전 모으기^^



100일 기록 사진. 남편과 처음 사귈 때부터 100일마다 사진을 찍고 간략한 소회를 적었는데, 그게 어느덧 66번째를 넘김(2025년 5월 6,600일 촬영). 새로운 100일 잘 지내봅시다.



구경 다니면서 받은 팜플렛과 스티커 모으기 아니 왜 모으죠?
뭔가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ㅎㅎㅎㅎ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한번씩 옛날 일기를 보면 내가 이런 걸 썼었구나... 싶기도 하고 오글거려서 못보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도 그때의 나를 정확히 돌아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는 제 일기 속 기록들이에요.

오래전부터 영화 티켓을 수집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떠올리며 과거로의 추억여행을 가끔씩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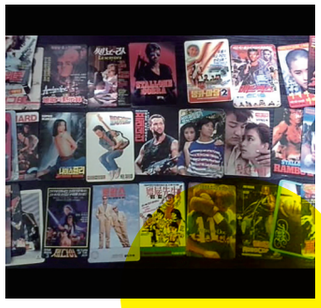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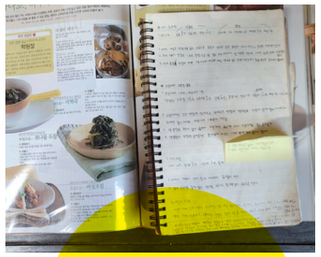
25년간의 기록. 다이어리와 가계부. 취미생활이자 습관. 스스로를 다듬고 만들어나가는 과정. 핸드폰 일정, 메모장과 더불어 부족한 기억력과 뇌용량을 보충해주는 소중한 나의 역사들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기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다이어리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생일, 데뷔일, 입대일, MBTI까지 빠짐없이 쓰고 귀여운 스티커와 사진으로 가득 채워요. 덕질도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노트를 펼칠 때마다 뿌듯하고 힐링이 되는 걸 보며 저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애정 표현이에요. 누군가는 유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행복한 기록 방식이에요.





애기때부터 모아온 영화카드. 요즘은 이런 카드를 볼 수 없어 아쉽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는 방법도 몰랐던 시절에 잡지에 나오는 요리 레시피들을 잘라서 스크랩을 해놓았었다. 그 중 쓸만한 것들을 노트에 옮겨서 요리할 때 잘 써먹었던 레시피북

차곡차곡 모아온 공연 티켓, 여행 관련 티켓. 티켓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



버리지 못하는 학창 시절 편지들. 소중한 나의 기록들





주부가 되어 오랫동안 적어온 가계부^^ 나의 오랜 소중한 기록들

응답을 기다리는 사진들:
우리는 어떤 과거,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최연하 | 사진평론가·공간풀숲 디렉터



1

발명 순간부터 기록이라는 운명과 묶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의 서랍 깊은 곳에서 나온, 가장자리가 닳은 흑백 사진이다. 사진 속에 찍힌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도 그 얼굴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 가진 가장 기이한 힘이 바로 여기 있다. 사진은 "그것이 분명히 거기 있었다(Ça-a-été, 바르트의 용어)"고 말한다. 그림은 그리는 이의 손과 상상을 거치지만, 사진은 셔터가 열린 그 찰나에 빛이 실제로 닿았던 무언가의 흔적이다. 부재하는 것의 현존. 죽은 이의 시선이 산 자에게 가닿는 일. 사진은 늘 이 작은 기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사진은 발명된 순간부터 '기록'이라는 운명과 묶였다. 1839년 다게레오타입[1839년 프랑스의 다게르(Louis Jacques Mandé Daguerre)가 발명한 초기 사진 처리 방식으로, 잘 닦인 은판 표면에 포지티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은판사진'이라고도 한다]이 세상에 나온 뒤, 사람들은 사진을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매체'로 환영했다. 19세기가 저물 무렵 사진은 식민지 행정과 인류 분류, 범죄자 식별, 의료 진단 도구로 빠르게 스며 들어갔다.

1
김은주, 〈다시 봄〉, 이임규(97세)와 딸 정영순(70세), 제주시 남원읍 신례2리 바닷가
김은주 작가의 〈다시 봄〉 연작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어느 날 작가의 손에 이끌려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무엇을 기념紀念하기 위한 사진일까? 이 사진 속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1948년 11월 겨울, 친구를 따라나선 남편(정원종, 당시 28세)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1949년 7월에 태어난 딸은 유복자가 되었다."

세 얼굴을 가진 사진 아카이브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붙잡아 두는 일이고, 붙잡아 둔 것을 모아 두는 곳이 바로 아카이브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아카이브를 중립적인 창고처럼 생각한다. 과거가 차곡차곡 보관된, 먼지 앉은 캐비닛. 그러나 사진 아카이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코 무언가를 적재해 놓기만 한 잠든 창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카이브는 동시에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을 붙드는 '증언'이며, 무엇을 기억할 지 결정하는 '권력'이고, 후대에게 사건을 넘겨주는 '초대장'이다.

먼저 증언의 얼굴로서 사진 아카이브의 힘을 살펴본다. 1945년 봄, 영국군이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에 들어섰을 때, 종군 사진가들이 남긴 이미지들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증언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과 기자들이 거리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도 마찬가지다. 부정할 수 없는 물질적 흔적. 이것이야말로 사진 아카이브가 역사의 증언대에서 늘 호출되는 이유다.

하지만 증언으로서의 사진에는 곧바로 한계가 따라붙는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이 날카롭게 지적했듯, 사진은 사건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한 장의 사진은 무수한 해석에 열려 있고, 어떤 설명을 다느냐, 어떤 맥락–사진 크기, 편집 방향, 사진이 놓일 장소 등 한 장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뒤집히기도 한다. 베트남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을 보자. 1968년 사이공 거리에서 남베트남 경찰청장이 베트콩 청년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에디 애덤스가 포착한 사진이다. 세계는 이 한 장을 전쟁의 야만에 대한 고발로 읽었지만, 정작 그 사진을 찍은 애덤스 본인은 평생 그 이미지가 맥락 없이 떠도는 것을 괴로워했다.

사진은 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진실을 어떻게 읽을 지는 결코 스스로 말해주지 않는다.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러므로 사진의 가치는 이미지 안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말과 제도, 어떤 공동체와 역사에 결합되는가'에 달려 있다.

아카이브는 동시에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을 붙드는 '증언'이며,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하는 '권력'이고, 후대에게 사건을 넘겨주는 '초대장'이다.

권력의 장치, 윤리의 문제

두 번째는 더 불편하다. 아카이브는 권력의 장치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 알퐁스 베르티옹은 범죄자의 신체를 표준 규격으로 측정해 식별 카드로 정리했고,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은 여러 얼굴을 겹쳐 '전형적인 범죄자상'을 합성하려 했다. 식민지 인류학은 사람들을 '유형 표본'처럼 촬영해 분류했다. 이 모든 작업의 공통점은 개별 인간을 표준화된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데 있었다. 여기서 아카이브는 중립적 보관소가 아니라, '무엇이 기록될 만하고 무엇이 잊혀도 되는가를 결정하는 권력' 그 자체로 작동한다.

이 통찰은 우리를 곤란한 질문 앞에 세운다. '어떤 사진은 보존되고 어떤 사진은 폐기되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누구의 시선으로, 무엇을 향해 셔터가 눌렸는가? 그리고 누가 그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가?' 기록한다는 것은 동시에 기록되지 못한 것을 침묵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이다. 자크 데리다의 말처럼 아카이브에는 보존의 욕망과 동시에 망각의 충동이 함께 깃들어 있다. 매일 헤아릴 수 없는 이미지가 쏟아지는 오늘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 것인가의 문제는 그래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가 된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미세한 진실

그렇다면 사진 아카이브는 결국 권력의 도구일 뿐일까? 아리엘라 아줄레이Ariella Azoulay는 사진을 한 명의 작가가 만든 '작품'으로 보는 대신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과 보는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시민적 계약The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으로 다시 보자고 제안한다. 사진은 그 장면에 연루된 모든 이가 참여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아카이브는 그 사건을 미래의 관람자에게 건네주는 매개다. 이 관점에서 아카이브의 가치는 과거를 박제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후대가 그 사건에 '다시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있다.

한국 현대사의 기록들이 바로 이렇게 작동한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보존된 시민과 기자들의 사진, 제주 4·3 유족들이 사적으로 간직해 온 가족사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공개된 인물 사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들은 단지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공식 역사가 누락한 시간을 시각적으로 복원하고, 침묵 당한 목소리를 듣게 만들며,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를 그 사건의 동시대인으로 불러 세운다. 거창한 역사적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다. 평범한 가족 앨범도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오래된 가족사진 속 인물의 시선에서 거대 서사가 결코 포착하지 못하는 일상의 결을 읽어냈다. 사진은 우리의 무심한 눈이 놓친 미세한 진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내 보인다.

디지털 풍요는 새로운 종류의 '망각'을 데려오고

지금 우리 시대 사진 아카이브를 둘러싼 상황은 어떨까. 디지털은 사진의 조건을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매일 수십억 장의 이미지가 클라우드에 쌓이는 오늘날, 문제는 더 이상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가 아니다. '이 이미지의 바다에서 무엇을 의미 있는 기록으로 건져 올릴 것인가'이다. 동시에 희망적인 변화도 있다. 국가 기록이 결코 담지 못하는 장면들이 시민들의 손에서 보존되기 시작했다. 내전을 기록한 시민 영상, 미투 운동에서 공유된 자료, 재난 현장을 찍어 올린 무수한 게시물들이다. 아카이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의 풍요는 새로운 종류의 '망각'을 데려온다. 플랫폼의 정책이 한 번 바뀌면 수천만 장의 이미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고, 파일 형식이 낡으면 20년 전의 디지털 사진이 19세기 은판 사진보다 더 읽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사진의 가장 깊은 약속, 곧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명제 자체를 흔든다. 사진이 더 이상 실재의 흔적이 아닐 수 있다면, 아카이브의 윤리는 이제 보존의 기술을 넘어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낯설게, 다시 읽기라는 과제

다시, 사진 아카이브의 힘을 제고해야 한다. 그것은 사라진 것을 붙드는 증언의 힘이자, 무엇을 기억할 지 정하는 권력의 힘이며, 과거의 사건을 미래로 넘겨 새로운 응답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의 힘이다. 이 세 힘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 장의 사진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그래서 사진 기록의 가치를 묻는 일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어떤 과거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거를 누구와 함께 기억할 것인가.'

아카이브에 보관된 사진은 닫힌 과거의 표본이 아니다. 그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열린 부름이다. 잊힌 이름을 다시 부르고, 침묵당한 장면을 다시 보고, 너무 익숙해진 이미지를 낯설게 다시 읽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사진 아카이브가 우리에게 건네는 동시대적 과제다. 사진은 과거를 기록한다. 그러나 그 기록의 의미는, 언제나 지금 여기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글이 빚진 책들

롤랑 바르트 「밝은 방」,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앨런 세쿨라 「신체와 아카이브」, 존 태그 「재현의 부담」, 자크 데리다 「아카이브 열병」, 아리엘라 아줄레이 「사진의 시민적 계약」, 발터 벤야민 「사진의 작은 역사」

2
필자의 가족사진, 1971년경
필자가 태어나기 전 가족사진이다. 이 사진에 찍힌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고, 아직 태어나기 전인 나는 사진에 없다. 사진은 분명히 살아있었던 사람에 닿은 빛의 흔적이다.

3
노순택, 무능한 풍경의 젊은 뱀, XI030701, 2011
카메라와 무기의 발달 속도는 비례한다. 더욱 빨리, 정확하게, 찍는 것.



2

생성형 AI의 등장은 사진의 가장 깊은 약속, 곧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명제 자체를 흔든다. 사진이 더 이상 실재의 흔적이 아닐 수 있다면, 아카이브의 윤리는 이제 보존의 기술을 넘어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3

Archive News

서울 시민의 기록 활동을 응원합니다~

2026년에도 서울 시민의 기록 활동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민기록축제인 '서울기록페어'를 비롯해 성북문화재단과 공동 기획한 전시 <예술가들이 기록한 도시>(가제), 각 분야 기록 전문가를 만나는 <여섯 개의 시선>, 찾아가는 기록문화체험, 예비 기록 전문가의 날 등이다.

올해도 시민기록축제가 찾아갑니다!

〈2026 서울기록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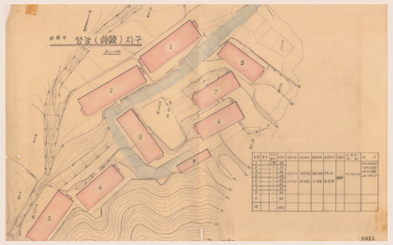


오는 10월 23~24일, 기록문화 축제인 〈서울기록페어〉가 개최된다. 서울기록원 내 전시실과 교육실, 컨퍼런스룸 등에서 진행될 〈2026 서울기록페어〉에서는 주제 세션과 함께 대중 강연, 전시,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를 기록하는 활동과 이야기를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서울기록원 누리집과 SNS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예술가들이 기록한 도시〉(가제) 전시 개봉 박두

성북문화재단과 공동 기획 전시 10월 20일 개막





행정 문서와 도면을 통해 세워진 도시, 그곳에 머문 이들의 문장과 붓질이 더해지면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은 성북은 오랜 시간 수많은 예술가들의 창작 터전이 되어왔고, 그들이 남긴 예술의 흔적은 도시의 풍경과 변화를 밀도 있게 담아낸 또 하나의 기록이 되었다. 서울기록원과 성북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예술가들이 기록한 도시〉(가제)는 공공기록과 예술가의 기록을 나란히 겹쳐 보며 성북이라는 도시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전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서울기록원 제2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록으로 상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2026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기록학, 건축학, 마을 기록 활동, 문화 콘텐츠 등 각 분야 전문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조망하는 강연 프로그램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이 올해도 진행 중이다. 각 강연자들의 현장을 누비며 축적해온 기록 활동 사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기록원 누리집 및 SNS 안내에 따라 회차별로 신청하면 선착순 참여할 수 있다.

강연일시	신청기간	주제	강사
5.28.(목) 14시	5.12(화) ~	아키비스트가 발견한 지속의 조건: 증평의 마을 아카이빙, 어떻게 이어왔는가	신유림 (증평군 기록관리팀장)
6.25.(목) 14시	6.9.(화) ~	공동체 네트워킹과 마을 기록 사례: 서울에서 하동까지의 기록 프로젝트 공유	심수림(우리 마을 기록단 대표)
7.30.(목) 14시	7.7.(화) ~	건축가의 기록: 서울의 한옥에서 현대주거까지	조정구(구가도시건축 건축가사무소 대표)
8.27.(목) 14시	8.11.(화) ~	장소성을 담은 기록: 디지털 조형과 제작 구법 사례를 중심으로	황지은(서울시립대 교수, 테크캡슐 대표)
9.17.(목) 14시	9.8.(화) ~	그림으로 기록하기: 서울 관련 작가의 작업에 대해 알아본 후 드로잉하기	정연석(건축가, 드로잉 작가)
10.23.(목) 14시	10.13.(화) ~	미래를 위한 기록, 우리의 역할	설문원(부산대 명예교수, 『기록학의 지평』 저자)

다시 '청춘의 순간'을 찾아서!

문화 향유 기회 넓히는 찾아가는 기록문화체험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매개로 청춘의 순간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록으로 기억을 '잇다!'(이하 '잇다')〉 프로그램이 2026년에도 계속 된다. 어르신,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민들과 공예 작품을 만들며 함께 하는 '잇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 후 선정된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7월까지 진행된다.

예비 기록가님들, 견학하러 오세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예비 기록 전문가의 날' 운영



서울기록원은 10월까지 기록관리 관련 전공 학생이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한 단체를 대상으로 '예비 기록 전문가의 날'을 운영한다. 서울기록원의 주요 활동과 시설, 소장 기록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기록관리와 보존서비스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Seoul Metropolitan Archives (SMA) : Home to the history of Seoul and its citizens

SMA preserves historical records and information abou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well as personal history of its citizens. Our mission is to foster civic life
by preserving and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city and its citizens. We strive to ensure that the records are properly maintained following professional archival and record management practices.
We provide home to a wide range of documents about Seoul and its citizens.
We work to transfer and collect records, preserve and restore archives, provide education regarding archival management and research, arrange and host a range of events such as exhibitions, lectures, seminars and workshops, among others.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